2 0 1 5
청렴사연수기공모전
수 상 작 품 집

우리나라엔 진짜 곱행료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심 사 평

03 우한용 | 교수, 소설가

04 이시백 | 소설가

05 이형권 | 교수, 문학 평론가



우한용 | 교수, 소설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아주 평범한 작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삶에 미치는 글쓰기의 영향은 똑같을 수 없다. 글쓰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사색하는 자세는 누구에게나 가치있는 일이다. 그 가치있는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치하를 보낸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70편의 수기를 읽으면서 응모자들이 겪었던 삶의 고뇌와, 그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자기 삶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바로 내가 사는 지역사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동체의 윤리감각을 불러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고마움과 불안한 미래를 극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부정부패의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사회의 면모를 읽게 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뇌물을 건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사회적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철저히 감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대부분의 응모자들은 삶의 조건이 어려움에도 유혹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위대한 거부'라 불릴 수 있는 그들의 선택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지면에 실릴 수상작들은 심사자에게 그랬듯이 독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정당한 삶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모색하는 과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요청되는 윤리이기도 하다. 청렴세상

이시백 | 소설가

2015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의 심사를 하며 느낀 첫 번째 소감은 응모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과 진지한 성찰이 돋보인다는 점이었다. 특히 공직 분야의 응모작들은 그 양적 규모와 더불어 청렴에 대한 고민과 소명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배태된 물질만능의 풍조는 자칫 금품과 향응의 부조리를 확산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지닌 공직자들에 대한 회유와 야합의 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럴수록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 요구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가 이번 응모작에도 다채롭게 담겨 있었다.

응모작들의 대부분이 청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남에게 내어놓기 쉽지 않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마저 솔직히 토로하는 지점에서는 그 통렬한 반성과 성찰의 의지를 감명 깊게 느꼈다.

다만 대부분의 응모작들이 '청렴'이라는 주제를 지나치게 금품이나 향응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에 편중되어 있음을 감지하게 되어 유감스러웠다. 다산께서 목민심서에서 이르듯이, "청렴은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청렴은 촌지나 뇌물과 같은 물질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며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라 하겠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들이 '청렴'을 돈이 담긴 봉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자세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청렴세상

이형권 | 교수, 문학평론가

이번 공모전의 테마는 '청렴'이었고, 글의 형식은 '수기'였다. 응모작들을 심사하면서 우선적으로 살펴본 것은, 그 내용이 청렴이라는 테마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간혹 문장과 표현은 아주 훌륭한데 테마와의 관련성이 적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글들이 있었다. 예컨대 청렴과는 거리가 있는단순한 선행을 소개하거나 일상의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청렴과 관계 깊은 소재를 선택하여 글의 형식에 맞게 쓴 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기라는 형식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당연히 진실하고 솔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참신한 표현과 정확한 문장이 곁들여지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이 포함되어야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체험을 소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체험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만의 개성적인 생각과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 1차 심사를 거쳐 올라온 글들이라 그런지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평소에도 글쓰기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볼 것을 권해 본다. 글을 쓴다는 것은 안으로는 자아를 성찰하는 일이고, 밖으로는 세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글쓰기는 성찰과 발견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상자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청렴세상

목차 Contents

대 상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 이호권	10
최우수상	공직부문	소신과 보람이 주는 행복 | 이수훈	16
	일반부문	인생 최고의 선물 | 박기순	22
우 수 상	공직부문	그 흔한 말 '바르게 살자' | 김준길	28
		거부할 줄 아는 용기 | 이장우	34
	일반부문	돌보다 정직 | 김현경	41
		결자해지 체악지정 | 장미자	47
장 려 상	공직부문	원칙과 양심, 나를 떳떳하게 하는 힘 | 이숙경	56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 | 이희택	63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요? | 지철환	68
	일반부문	돼지 저금통 | 김계석	74
		인생을 바꾼 청렴 | 김세훈	80
		향기 나는 언론인 | 김지윤	85

입선상

공직부문

부패와 바리의 끝에서 | 김상범 ---- 92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 김성현 ---- 97

청렴과 부패는 종이 한 장 사이 | 오세연 ---- 103

목격자를 찾습니다. | 윤시수 ---- 108

무지개빛이 회색빛이 되더라도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 이미선 ---- 114

일반부문

종이 자전거 | 강기동 ---- 120

한 컬이의 눈물 | 김은영 ---- 126

초코파이 | 김태현 ---- 131

청렴사진관 | 정혜연 ---- 138

손지 | 조정임 ---- 141

대 상

| 10 우리나라엔 진짜 귤행토가 있다 | 이호권



대 상 이호권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간 다닌 회사가 경기 불황으로 휘청거렸다. 정리해고 소문이 사내에 돌았지만 설마 내가 정리해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 명단에 들고 말았다. '8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 잠시 쉬면서 다른 일을 찾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생각뿐이었다. 집에 있는 두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니 하루도 쉴 수 없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여서 구직자를 구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다른 분야라도 도전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고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반년 가까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아내와 상의도 한 끝에 이렇게 구직이 힘들다면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도 있어서 일감을 얻어낼 수도 있고, 사업이 안정만 되면 월급쟁이 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아내도 걱정이 많았지만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었다.

창고 겸 사무실로 쓸 장소도 구했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내와 둘이서 내부에 페인트를 칠했다. 사무실 집기류를 중고로 구해서 들여놓으니 그럴싸한 사무실처럼 보였다. 물론 옆의 창고 공간이 더 컸지만 말이다. 지금은 작은 곳이지만 크게 키우자며

사무실 단장을 마치고 아내와 짜장면을 시켜먹으면서 다짐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는 뭔지도 모르면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했다.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사업허가 신청서류도 구비했었다. 사업허가가 필요한 직종인지라 만에 하나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까봐 해당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러 정보들을 참조해서 서류도 꼼꼼히 준비했다. 마지막 서류 하나가 외국에서 도착해야하는 것이라서 도착할 때까지 접수를 미루고 있었다.

그 사이에 사무실 단장을 마치고 개업 고사를 지냈다. 이전 회사 동료들, 당시 거래처 직원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막걸리를 한 잔씩 했다. 아내와 둘이서 사무실에 페인트를 칠할 때는 적막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 가득 모여서 떠들썩하니 사무실이 가득차고 활기가 넘쳤다. 정말 회사가 번창해서 이 작은 사무실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더 큰 사무실로 옮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사를 지내면서 아내와 나, 우리 부부는 간절히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했다.

그날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전 회사 다닐 때 거래처 사장님이 계셨는데 일처리가 마음에 든다며 나를 신뢰해주셨던 분도 있었다. 그 분께서는 내 사업의 첫 고객이 되겠다며 다음 번 베트남 물량을 나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했다. 물량이 크고 적지 않은 금액인지라 나는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해서 계약날짜만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다.

며칠 후,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하고 이제 다른 서류를 들고 함께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허가를 받아야했다. 걱정은 사업자 허가 서류를 받는 기간이었다. 보통은 접수하고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두 달이 넘게도 걸린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였다. 미리 받아놓은 거래처의 일감이 있기 때문에 허가 서류가 한 달을 넘겨서 나오면 큰 낭패였다.

이런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다들 급행료를 좀 쓰라고 했다. 회사를 8년 가까이 다녔으니 급행료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오히려 통하지 않는다고 들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은근슬쩍 급행료를 쥐어주는 것이 일을 빨리, 그리고 약간의 미비한 서류가 있더라도 눈감아 줄 수도 있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 사업 초기의 중요한 거래처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만 눈 딱 감고 급행료를 지불 해보는 거야.'

서류를 접수하면서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백화점에 들러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 결혼해서 아내에게도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는데, 이런 돈을 써야하나 싶었다. 주변에서 다들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상품권을 지갑에 넣고 다시 구청으로 갔다. 어제 서류를 접수한 내가 다시 찾아오자 담당자는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조용히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해당 주무관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저희는 식사 대접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기다려주세요."

냉정한 주무관의 반응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당혹스러워서 대충 인사를 하고 구청을 빠져 나왔다. 주차장에서 한참 앉아서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내가 너무 어설프게 식사대접을 이야기한 것인가? 주무관이 일부러 서류를 보류시켜서 허가 안내주면 어쩌지? 주무관이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아까는 오해였다고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괜히 어설프게 행동했다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아내에게는 물론 주변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만 태웠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자책하기도 했다.

애를 태우던 3주가 지나고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다. 사업자 허가서가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문자였다. 뛸 듯이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했다. 보통 한 달은 걸린다는데 어떻게 3주 만에 나온 것인지, 그리고 주무관에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된 것인지 말이다.

문자를 받고 바로 서류를 찾으러 가서 주무관을 찾았다. 서류를 건네주면서 주무관이 차 한 잔 하고 가시라고 하더니 내가 산다는데도 굳이 자신이 산다면서 구청 내 카페테리아에서 내게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저녁식사나 하자는 말을 하면서 내 눈빛이 참 많이 떨렸다고 한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망설이는 그런 눈처럼. 저녁식사 초대를 단박에 거절한 그 주무관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신청한 서류를 오히려 더욱 꼼꼼히 검토했다고 한다. 모든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했고, 신청서도 잘 써서 놀랐단다.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될 일인데 왜 그랬는지 궁금해 했다.

"저… 그게 주변에서 하도 급행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나라엔 필요하다고."

"구비 서류 완벽히 갖추시고, 신청서 오류 없이 써주시면 그게 급행료에요. 담당공무원을 믿고, 제출해야할 서류만 완벽히 제출해주시면 되요. 저희 주무관들이 처리하는 일이 많다보니 서류가 미비한 사항은 보충을 해달라고 연락드리고, 그러다보면 일자가 밀리는 일이 많거든요. 담당 공무원을 믿으시고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만 철저히 준비해주시면 그게 진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급행료에요. 앞으로도 이번처럼 서류만 완벽히 준비하시면 처리 업무가 늦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주무관 앞에서 나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민원 신청자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급행료라는 말에 진심으로 신뢰가 갔다. 나름대로 회사생활도 8년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

"나중에 인허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주세요. 그럼 저는 일이 밀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무관에게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허가 서류가 나왔다고 알렸다. 한 달은 걸린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아내가 물었는데 나는 '진짜 급행료'를 썼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3주간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백화점 상품권을 아내에게 선물했다. 아내는 놀라면서 이게 뭐냐고 했고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냐고 아내는 나를 나무랐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내에게 다짐했다.

그 뒤로 나는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인허가 업무가 필요할 때, 내가 서류를 잘 준비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면 친절히 주무관들이 대답해 주었고, 그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서류 처리가 늦어지거나 미뤄질 일이 없다.

진짜 급행료는 뒷주머니로 전해지는 돈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서류다.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업체에게 뒷돈을 먹이고 일감을 따내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었다. 확실히 맡은 일만 잘 처리하면 그런 뒷돈과 접대가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하고 일을 늘릴 수 있었다. 처음에 회사를 열면 주변에 접대도 하고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틀린 것이었다.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처리하면, 그것이 바로 사업을 키우는 지름길이고 급행료인 것이다.

한 주무관이 나에게 준 진짜 급행료의 교훈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다. 청렴세상

최우수상

공직 | 16 소신과 뚝심이 주는 행복 | 이수훈

일반 | 22 인생 최고의 선물 | 박기순



최우수상 공직부문 | 이수훈

소신과 보람이 주는 행복



1995년 초, 교육행정직 7급 공무원으로 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 당시 나는 공유재산관리업무를 맡았는데 내가 제일먼저 겪었던 고충은 촌지에 관한 것이었다. 부임하자 곧 관내 초 · 중학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대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일선 학교에서 찻값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갖다 주는 촌지봉투를 돌려보낸 것이 문제되었다. 부정부패의 씨앗은 바로 촌지관행에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나는 이러한 관행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돈 봉투를 모두 거절하고 때로는 내미는 사람들을 나무라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러한 모습에 오히려 황당함을 느꼈던 모양이다. 여러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고 그 중에 어떤 6급 선임공무원은 무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상급자에게 가서 왜 성의를 무시하느냐고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직속상관인 관재계장은 놀란 표정으로 나에게 와서 그것은 나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을 모아 부서경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거절하면 곤란하다는 뜻으로 나를 설득하려하였다. 이에 대해 나 역시 세상이 바뀌었음을 주장하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제시하며 설득을 시도하였으나 서로 생각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미묘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이 같은 일로 나는 교육지원청 근무 초기부터 간부들에게 별난 사람으로 인식되었고, 몇 달 후 중학교 신설사업관련 항명 편지사건으로 윗사람들에게 완전히 찍히게 되었다

내가 교육지원청에 발령받았을 당시 그린벨트지역에 중학교 신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토지매입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내가 관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용지사용 승인'도 내려왔다.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시설예정부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고 사유지를 매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실무자들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당시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시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초·중학교 교실이 남아돌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 불필요한데도 이를 추진하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그런 줄 알면서 왜 말을 못하느냐고 했더니 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졸병이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어쩌겠느냐고 하였다. 사업추진의 배후에는 당시 여당의 막강한 실력자였던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의 뜻이라고 하여 무조건 따라가는 그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이 사업에 관한 그들의 평소 불평과 도지사로부터 이송된 이 사업관련 진정서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하도록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

편지의 요지는 "현재 우리 교육청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94년을 고비로 하여 전체 중학생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법정 학급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과밀학급은 모두 해소되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통교실이 남아돌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학교의 신설은 불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부처에 제출한 자료에는 마치 중학교의 신설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이는 우리 교육청

업무담당자들의 진실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중학교의 신설을 당연한 것으로 먼저 전제해 놓고 업무추진을 지시하는 상부의 뜻에 따라 그린벨트 내 학교신설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료를 기술적으로 끼워 맞춘 것이다. 시내에 중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예산을 공익에 반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는 중학교 신설사업에 더구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그것도 공익이 아닌 일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곳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쓰인다면 정말 큰 문제이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는 국회의원의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일을 추진하는 우리들의 땀 흘리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고낭비이며 특정인의 부당한 이익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 모두에게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중학교의 신설을 시민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진실로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사업에 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라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편지를 국회의원 집으로 보내려고 지역구 사무실에 주소를 물었더니 사무실로 보내주면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지역구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이틀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교육청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과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간부회의가 평소 때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더니 관재계장이 간부회의에 불려갔다 나와서는 얼굴을 붉히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국회의원한테 보낸 편지가 어찌된 영문인지 도교육청 관리국장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 국회의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보좌관의 단독적인 소행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편지를 도내 일반직에 대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관리국장에게 바로 전달한 것은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국회의원의 인격을 믿고 판단에 도움을 주기위해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내용의 진실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만약 내가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를 조용히 불러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사업추진을 지시한 상부에 알려지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말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나 때문에 관재계장과 재무과장의 입장도 난처하게 되었다.

도교육청 관리국장은 교육지원청 K 관리국장에게 전화하여 크게 질책을 하였고 화가 난 K 관리국장은 간부들을 불러 질책하며 나에 대한 문책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E 재무과장은 자신의 선에서 나를 문책하는 것으로 끝내자고 한 모양이었다. 결국 나는 E 재무과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고 K 관리국장에게 따로 불려가서 1시간가량 훈계를 듣는 것으로 편지사건은 마무리되었다. K 관리국장은 "공직생활 수십 년 동안 너 같은 놈 처음 본다."라고 나무라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나를 훈계하였다. "신설중학교 용지구입비 예산은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따온 것인데 이미 확보된 이 예산은 연도 내에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교육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 반납된 그 돈이 국가적으로 요긴하게 사용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떤 용도든지 우리 지역에서 쓰이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것 아니냐"고 하였다. 그리고 "일단 땅을 사놓으면 꼭 중학교가 아니더라도 독립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K 관리국장의 말도 현실적으로 일리는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땅을 사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그린벨트 내 땅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모종의 음모가 엿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음모가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만약 모든 면에서 떳떳하다면, 지시를 끝까지 거부한 나를 업무태만으로 징계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관련자들로부터 욕을 먹기는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편지사건 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우리 관재계에서는 신설예정부지에 진입도로가 없음을 핑계로 시청에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일부러 일을 지연시켰다. 그러던 중 국회의원이 지역유지 및 기관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L 교육장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지방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요지는 "국회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인 중학교 신설을 위해 많은 애를 써서 교육부로부터 특별예산을 따 놓았는데 교육지원청 당국의 무성의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L 교육장은 노발대발하여 E 재무과장을 불러 당장 땅을 사라고 지시하였고, 재무과장은 어쩔 수 없다며 우리에게 이 지시를 따르라고 하였다. 나는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교육장을 설득하기 위해 교육장실로 갔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자 교육장은 화를 참지 못하고 나에게도 큰소리로 나무랐으나 나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육장님! 신문에 난 것이 불쾌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두들겨 맞고 끝나는 게 낫지,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앞으로 감사원 감사에 걸리거나 중앙언론에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며 설득을 계속하였다.

교육장은 그래도 땅을 사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체면상 하는 말 같았다. 다행히 사직서로 대항해야하는 사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이 지남으로서 이 사업은 자동적으로 폐기되었고 예산은 반납되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사람은 없었다.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교육장은 나를

보면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일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 자신도 사실 그 사업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그동안 관행에 순응하지 않은 태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기도하고 승진인사에서도 항상 밀려났었지만 결국 하늘은 나의 편이 되어주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공직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때의 일은 뿌듯한 자부심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다.

최우수상 일반부문 | 박기순

인생 최고의 선물



"어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산되어 온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아내가 슬며시 묻는다.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짓자 아내의 얼굴에도 살짝 그늘이 진다. 그것도 잠시, 힘내라는 듯 내 어깨를 두드려준다.

"괜찮아요. 세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3월과 4월은 절약의 달이다. 옷이나 신발 구입은 다음으로 미루고, 술자리도 피한다. 외식이나 나들이도 줄이고 마트 비용이나 덩어리 있는 지출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한다. 작년 어린이날에는 쌍둥이들 선물도 건너뛰었다.

작은 쇼핑몰로 시작해 이제 막 점포를 차리고 일거리도 늘리기 시작한터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했다. 그렇게 절약을 해도 5월은 마이너스가 되기 일쑤였다. 다행히 이번 5월은 흑자였다.

"오늘 저녁에 쇼핑이나 갈까?"

툭 던진 말에 방을 나서던 아내의 표정이 어리둥절했다. 내 장난기 어린 얼굴을 보고 나서야 속았다는 걸 깨달은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잘 된 거예요?"

"힘들 줄 알았는데 4월 매출이 꽤 되네. 조금 남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보다

넉넉하게 남겠어.”

종합소득세를 낸 뒤 흑자라면 우리 가족은 백화점 쇼핑을 한다. 그날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일 년에 몇 안 되는 날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쇼핑하러 간다는 말을 들은 쌍둥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가지고 싶은 장난감 이름과 먹고 싶은 저녁 메뉴를 경쟁이라도 하듯 하나씩 외쳐댄다. 내가 녀석들을 쫓아다니며 옷을 입히는 동안 아내는 콧노래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한다.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진 집안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흘러나온다.

퇴직을 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십여 년이 되어간다. 들쭉날쭉한 수입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고 휴일과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때때로 어깨가 쳐지지만, 단골이 늘어나며 안정화되어 가는 사업과 건강하게 자라는 쌍둥이를 보면서 마음을 추스르곤 한다.

지금 운영하는 점포와 쇼핑몰은 두 번째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유통사업에 실패한 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항상 세금과 비용에 신경을 써야 했다. 직장을 다닐 때와 가장 크게 다른 점 중 하나가 그것이었다. 세금과 비용에 관련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재작년의 일이었다. 부가세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사무장이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좋은 절세 팁 하나 알려 드릴 테니 언제 저녁이나 먹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한 끼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 흔쾌히 응낙했다. 며칠 뒤 작은 한정식 집에 자리를 마련했다. 일상적인 대화와 함께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사무장이 말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친척 중에 사업자 명의 빌려 줄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시작한 사무장의 절세 팁이란, 간이과세자의 세제 혜택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 명의 돌리기와 사업자 명의 분산이었다. 사무장은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방법과 매출을 분산시키는 방법, 오픈마켓 ID 관리 방법, 사업자 통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었고, 그 방법으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산해 주었다.

나는 혹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장이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과 매월 세무사 사무실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블로그나 카페도 만들고 거기서도 판매해 보세요. 그쪽은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세금이 제로라는 거죠. 비밀댓글로 운영하면 걸릴 일도 없죠."

사무장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얼마만큼이나 줄여주었는지,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신나게 이야기했다. 혹시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없으면 싼 가격에 알선해 주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사무장과 주고받았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쌍둥이들이 커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처음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주어진 조건 내에서만 키우자.'라고 아내와 약속했지만, 막상 닥치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두뇌 발달에 좋다는 최신 장난감들, 유기농이니 오가닉이니 하는 딱지가 붙은 브랜드 의류들, 발육에 좋다거나 EQ와 IQ를 발달시켜준다는 프리미엄 먹거리 등, 조금이라도 좋은 상품에 손이 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사교육도 시켜주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처럼 벌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내는 더럭 겁부터 냈다.

"발각되면 전과자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한대. 걸릴 일도 거의 없는데다, 만에 하나 걸려도 추징금이랑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

불안해하는 아내를 그렇게 안심시키고, 나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다음 날,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한 달 내로 서류들을 준비해 넘겨주기로 했다.

얼마 뒤, 여름옷을 꺼내기 위해 서랍장을 정리하다 쌍둥이가 태어날 당시의 물건들을 모아 둔 박스를 발견했다. 박스 안에는 아내의 임신 일기, 임신을 알려 준 배란 테스트기, 쌍둥이의 초음파 사진, 아내의 만삭 사진, 출생증명서와 탯줄 등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간호사들과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도 있었고 기념으로 뽑아 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었다.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내 손은 박스 가장 아래에 놓인 봉투에 이르렀다. 황토색 무지 봉투 안은 대충 구겨 넣은 영수증들로 가득했다. 병원비 영수증들이었다. 영수증들을 넘기며 무심코 금액을 합해보니 천만 원이 훌쩍 넘어갔다.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 수십 차례나 병원을 들락거렸으니 그럴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쌍둥이는 어느 부부에게나 각별하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조금 더 각별했다. 열 번이 넘는 호르몬 요법과 세 번의 인공수정, 그리고 두 번의 시험관 시술이 있었다. 유산도 한 차례 있었고, 계란 크기의 자궁 근종 제거 수술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이도 울었다. 슬퍼서 울기도 했고, 아파서 울기도 했고, 기뻐서 울기도 했다. 그렇게 결혼 9년 만에

얻은 소중한 생명들이었다.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다. 첫 사업에 실패한데다 갑자기 오른 전세금 마련에 생활비조차 버거워 아이는 꿈도 꾸기 힘들었다. 하지만 40을 코앞에 둔 나이 때문에 임신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인공 시술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해 준 것이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이었다. 결국 2년의 긴 도전 끝에 우리 부부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영수증들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생각에 빠졌다. 영수증들에 찍힌 금액의 대부분을 병원에 지불한 것은 내가 아닌 국가였다. 국가가 지불해 준 그 돈은 누군가가 열심히 일해 납부한 세금이고, 그 소중한 세금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답은커녕 탈세를 생각하다니!

생각할수록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영수증들을 봉투에 챙겨 넣으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을 위해서라도 탈세 따위는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곧바로 사업자 명의 돌리기를 위해 모았던 서류들을 찢어버렸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한 말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탈세를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매월 어린이집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도둑질까지 한다면 무슨 낯으로 우리 쌍둥이를 볼 수 있겠어요. 잘 생각했어요."

그동안 나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했었던 모양이었는지, 아내는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해.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선물도 해 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아내가 괜찮다는 듯 손을 잡아 주었다. 아내의 따뜻한 손이 우리는 이미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청렴세상

우 수 상

공직 부문

28 그 흔한 말 '바르게 살자' | 김준길

34 거부할 줄 아는 용기 | 이장우

일반 부문

41 돌보다 정직 | 김현경

47 결자해지 체악지정 | 장미자



우 수 상 공직부문 | 김준길

그 흔한 말 '바르게 살자'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갔다. 하루 내내 몰두하여 거의 마무리 짓고 오후 여섯시 경 사무실을 나오려는데, 쉰 전후 정도로 보이는 내 또래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의 낯빛은 적잖이 수척해보였고 입성 또한 꽤나 초라했다.

"저, 상담 좀 하려고 왔는데요."

"아 네, 앉으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그게... 제 아들이...휴우"

남자는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한숨부터 내쉬었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일단 이 커피 한 잔 드시고요."

상담자의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의 첫 번째였다. 남자는 한 몇 분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남자가 말한 아들은 남자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다. 즉, 중국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바로 그 여자가 데려온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남자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인 것이다. 그런데도 남자의 말 속에선 친아들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분히 드러났다.

아무튼 아들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잡혀 있다고 했다.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러 온 것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나는 남자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두루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남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들의 형량이 어느 정도 감량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변호사 수임료는 대체 얼마나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기에 이도 명확히 말 해 주어야 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무장 입장으로서야 가능한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건일수록 반가운 법이다.

"제가 우리 아들 나중에 결혼하면 아파트라도 하나 전세로 얻어주려고 5천만 원을 모아두었어요."

지갑에서 꺼내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하는 이 남자의 말에 가슴이 대번 뭉클해지더니 나도 모르게 수임료를 몇 백이나 깎아 말해버렸다. 남자는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며 아내와 상의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하고선 총총 사라졌다. 남자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친아들도 아닌데 어찌 저리 정성과 진심을 다 할 수 있을까, 아들을 둘이나 둔 친아빠인 나보다 백 배, 아니 천 배나 더 아빠다운 아빠가 아닌가. 그날 밤 내내 관절마다 욱신욱신 통증이 일었다.

경찰시험에 합격 하고 순경이 되어 파출소로 첫 출근을 했을 때, 어머니는 사흘들이 동네방네 자식자랑을 하러 다니셨고, 결혼을 하여 연이어 아들 둘을 낳았을 때도 어머니는 열흘들이 사람마다 붙들고 손자 자랑을 하셨다. 그래도 어머니는 한사코 내 사는 집에 오지를 않으셨다.

"내가 가면 며느리 고생만 시킨다. 니도 순사일 한다고 바쁜데 엄마가 가서 괜히 방해하면 어디 쓰것나. 내는 잘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그저 느그나 잘 살면 된다."

때가 되어 진급을 하고 아들들도 건강하게 커 가고 이대로만 간다면 아무 문제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일은 자꾸만 생겨났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받는 경찰관 월급으로 재테크는 고사하고 변변한 아파트 한 채도 쉬이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조금씩 경찰관 직권을 이용한 부정한 축재(蓄財)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다는 조건으로 노래방 사장들에게 뇌물을 받았고, 성인오락실이며 성매매업소 등 가리지 않으며 뒤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겼다. 처음에야 양심에 찔려 잠자리를 수없이 뒤척이기도 했으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태연해졌다. 그렇게 경찰관의 부정한 직권이용은 시나브로 남용(濫用)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디 나만 그런가? 그러지 않는 경찰 있으면 어디 나와 보라고 해.' 그나마 아직 남아 있는 티끌만한 양심도 스스로에게 이러한 최면을 걸며 질끈 삭제해 버렸다.

그러나 이 모든 행각들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청에서 하는 사무 감사에서 내가 조사대상이 된 거였다. 사실인 즉, 누군가 나의 비리를 경찰청 경리과에다가 민원으로 넣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 내게 뇌물이나 뒷돈을 건네준 업주들만 함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하루하루 죽을 맛이었다. 경찰서 직원들 모두가 마치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하며 조롱하는 것 같았다. 곧 내가 비리경찰이라는 소문이 경찰서 내에 파다하게 퍼질 게 분명했다. 소문이야 그렇다 치고 일단은 감사에서 증거를 확보한다면? 나는 아마 즉각 해고 되겠지? 어쩌지 이를 어쩌지?

사직서를 썼다가 버리고 또 썼다가 찢고, 결국 경찰복을 스스로 벗고야 말았다. 비리경찰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찍고 잘리는 것 보다는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 여겼으니까. 사직서를 내고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올 때, 늙고 병든 나뭇잎 하나가 내 발등 위로 떨어졌다.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분노하며 폭발 했다. 직장도 없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사느냐며 사네 못 사네, 빨리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며 못 사네 죽네. 사흘들이 부부싸움이 벌어졌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울어댔다. 마침 하필이면 그 때 허리디스크가 심해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방구석에 틀어박혀 누워있어야만 했다. 한 달, 두 달, 나는 거의 꾀죄죄한 꼴을 하고선 두문불출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아내는 끝내 내게 이혼을 요구했다.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 도둑질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보내. 하루도 이제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못 살겠으니 당장 헤어져."

부부의 연을 맺어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내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죄를 진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뜻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나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래 미안하다, 애초에 나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면….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 전부를 아이들 맡아 키운다는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었다. 그리고 나는 옷 몇 가지 가방에 챙겨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다. 당장 가서 잠을 잘 곳도, 밥을 먹을 데도 없었다. 그렇게 뇌물과 뒷돈을 받았건만 그 돈들은 다 어디가고 주머니에 든 몇 십만 원이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

정처 없이 차를 몰았다. 그런데 저 앞에서 교통의무경찰이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해왔다. 차를 세우고 차 유리문을 내리니 그가 다가와 눈썹 옆에다 거수를 하며 말했다.

"속도위반을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하십시오." 같은 경찰끼리는 교통위반을 해도 봐주던 암묵적 거래가 있었으므로 습관처럼 '직원인데…' 막 내뱉다가 화들짝했다. 아, 그렇지. 난 이제 경찰이 아니지. 멍멍한 표정으로 경찰신분증 대신 면허증을 내주었고 나는 속도위반 딱지를 끊겼다. 아내가 이혼장을 내밀던 순간보다 서글펐다. 어쩌다 내가 이 꼴이 되었나. 후회는 방금 전에 밟아댄 자동차 속력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질주해

오고 있었다.

이제는 김경장님도 김형사님도 아닌 '김씨' 혹은 '어이'가 되었다. 허리 디스크가 전보다 심해진데다가 고혈압까지 왔기에 험한 일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조건 일 할 것을 찾아야 했다. 잡다한 물건을 팔러 다니고, 주유소에 취직해 기름을 넣어 주고, 저녁에는 고깃집 불판도 닦으러 다녔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물 불 가리지 않으며 손을 적시고 팔을 데며 일했다. 조서를 받고 범인을 검거하던 이 손과 이 팔로…. 자존심이 박살나고 눈물이 툭툭 터져 나왔지만 그 때마다 늘 또 떠오르는 얼굴은 어머니와 자식들이었다. 누구를 탓하나 자승자박(自繩自縛)인 것을…. 고시원 쪽방 한 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으로 외치고 외쳤다.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취직할 때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었다. 별의별 일을 하며 숱한 사람들을 만나며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고 경험했다. 강(强)과 약(弱)의 관계, 갑(甲)과 을(乙)의 구조, 악(惡)과 선(善)의 경계.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또렷이 깨닫게 되었다. 어릴 적 국어와 도덕시간에 배웠던 그 쉬운 말, '바르게 살자!'다. 강이 되더라도 바르게 강해야 하고 갑이 되더라도 바르게 갑으로 서야 한다. 결국 선은 명백히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과 더불어 사회와 더 나아가 이 모든 세상이 더없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거라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아빠! 잘 계시죠? 저 군대 제대하면 경찰시험 보려고요."

큰 아들 녀석은 아마도 경찰관이 될 것이다. 제 아빠의 못난 전철(前轍)을 절대 밟지 않고, 양심(良心)과 청렴(淸廉)을 굳건히 지키는 멋진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될 것임을 믿는다.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며칠 전 상담하고 간 남자의 전화가 왔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몇 백 만원이나 더 부르더라고요. 사무장님이 가장 좋으신 분 같아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청렴韓세상

우 수 상 공직부문 | 이장우

거부할 줄 아는 용기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 사회에 살면서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나 역시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사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시련이었다. 동시에 만약 그 때 유혹에 빠졌다면 수월하게 더 높은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부패 사례와 이를 극복한 경험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다. 그런 찰나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수기 공모전의 공문을 보게 되어 용기 내어 사연을 게재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까?'

난 평범한 경찰 공무원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부친을 따라 양구, 서울, 수원 등을 이사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이다. 나의 직업은 군인이다.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는 소령으로 서울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런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잊지 못할 부패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느덧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2월 나는 소령 학교기관인 육군대학에서 소위·대위 학교기관인 보병학교

교관으로 보직을 명령 받아 전출을 가게 되었다. 학교기관에서 복무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후배 장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고민, 흥분, 기대를 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학교정문을 통과한 기억이 생생하다. 보병학교장님의 전입신고를 시작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교관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인사를 하였다. 처장님, 과장님, 선배 및 인접교관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다. 보병학교에서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강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연구 강의는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연구 강의 준비는 나에게는 큰 시련으로 다가왔다.

연구 강의 과목의 변천사 및 교과체계 파악, 관련 교범 및 교육자료 숙지 등 교관으로서 맡은 과목에 대한 뿌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나의 것으로 소화해 가는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훌륭한 교관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버텨 나가고 있었다. 종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야간 및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연구 강의 준비에 매진하였다. 이런 연구 강의 준비과정은 그동안 학교기관에서는 당연 시 되어 왔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일반 직장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보병학교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처-과 단위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당연히 처에는 처장이 있으며 과에는 과장이 편성되어 있다. 나 역시 과장의 통제를 받는 과원의 교관이었다. 과장은 중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에게는 1차 평정권자이고 2차 평정권자인 처장과도 유대관계를 통해 과원들의 좋은 평판이나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는 자리이다. 이것은 일반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과장에게 어떻게 하면 연구 강의를 멋지게 해서 '첫 이미지를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임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보직되어 복무하고 있는 선임교관들에게 '과장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등 궁금한 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온 선임교관들의 대답은 과장님이 '시간이 좀 지나면 아내하고 같이 과장님 댁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할 것이다!', '선물은 어떤 것을 준비하라고 언급 할 것이다.' '설·추석 명절, 과장 생일 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 질 것이다,' 등 그동안 선임교관들이 과장으로부터 경험했던 부패행위를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그 때, 나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도 없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의 적응과 연구 강의 준비는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선임교관들이 조언해 준 말대로 나에게도 올 것이 왔다.

어느 날, 과장이 '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얼굴도 모르면 실례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 가족을 초대하였다. 나는 좋은 취지에서 과장이 말하는 것이 아님을 선임교관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부대 전입 후 상급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과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장에게 '언제쯤 찾아뵈면 좋겠습니까?' 여쭈어 보았다. 과장은 '이번 주말에 괜찮은 것 같다. 누가 보면 오해 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찾아오고 애들은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찾아 올 때는 네가 빈손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일 수 있으니까 고민을 덜어 준다는 입장에서 상품권으로 해라!'라고 노골적으로 나에게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과장이 나에게 했던 말대로 선물을 가져가야 하나? 나는 선임교관들과 가족하고 상의를 했다. 결과적으로 '과장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은 예의이며 과장에게 잘 보여야 평정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과장이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고, 갈 때는 선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나는 '어느 정도의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시작했다. 선임교관들도 '나도 전입 와서 인사를 드렸고 선물도 드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선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고민 끝에 상품권 20만원과 와인을 3~4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하고 과장 댁으로 찾아갔다. 과장은 나와 가족에게 덕담을 하기 시작했다. '본인이 나를 우리 과의 교관으로 선발하였고, 열심히 하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 복무하고 있는 교관도 본인이 진급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었다. 과장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진급하려면 과장에게 계속해서 돈이나 선물을 해야 하나? 혹시 안 주면 당신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는 것 아니야?' 결혼해서 지금까지 전방 격오지에서 나만 바라보며 내 옆을 지켜준 우리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난 충격이었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복무하면 이 위기(危機)가 호기(好氣)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상급자에 대한 예의로서 할 도리를 했다.'라고 내 자신을 회유하면서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나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야간까지 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나는 오후 아홉 시 즈음 과장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뭐하냐? 나 어느 술집에 있으니까 나와라!'라는 전화였다. 나는 직감에 과장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과장이 있는 술집으로 찾아갔다. 역시나 과장은 술에 취해 있었다. 과장은 '연구 강의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은데 우리 아가씨도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동안 과장이 선임교관들에게 상습적으로 요구했던 향응 부분이 떠올랐다.

'아! 지금 과장하고 술자리를 하게 되면 군인,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공손한 자세로 과장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과장님!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저녁도

먹지 못해서 가족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에 과장은 '그래! 나 혼자 먹을게. 집에서 밥이나 먹어라!'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계속해서 집에 가라고 말했다. 나는 '내일 과장이 술을 깨면 내가 한 행동에 고마워하겠지!' 하는 마음에 술집에서 과장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 10분 정도가 흘렀다.

과장에게 전화가 왔다. 격앙된 목소리로 '너 같은 놈은 처음 보았다. 나를 두고 네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냐? 앞으로 두고 보자.'식의 욕설과 폭언이 있었다. 과장의 욕설과 폭언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상스러운 말로 나를 공격했다. 나는 '일단 술에 취해 있는 과장을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에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과장의 욕설과 폭언이었다. 문자로도 얼마나 많은 사죄의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다. 나의 그 동안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말았다. 다음날 출근을 해서 선배 동료들과 상의를 했으나 별다른 조언은 없었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해라는 것 이외는 없었다.

과장실로 찾아갔다. 어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과 죄송함을 표현하였다. '과장님! 어제는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으나 과장은 '얼굴 보기 싫다! 연구 강의 준비도 네가 알아서 해라! 다시는 나에게 찾아오지 마!'라는 냉랭한 말씀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 줄 것으로 나는 믿었다. 매일 아침마다 과장 사무실 청소와 정리를 하였고, 일일단위 연구 강의 준비경과에 대해서 과장에게 보고하였다.

술집에서 일이 있던 날로부터 1주일 정도가 흘렀다. 과장이 반응을 하였다. '네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그 날 네가 예의 없이 한 행동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너로 인해서 화가 나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차량 수리비가 60만원 가량 나왔으니 네가 부담해라.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없었던 일로 하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인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으면 본인이 어떻게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겠는가?'

나는 '이 사람이 혼자 술 먹고 나온 금액을 나에게 청구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나는 '과장이 요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과장은 진급 평정 점수를 당연히 나쁘게 줄 것이고 이런 사람을 고소하면 상급자를 고발한 나쁜 부하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주변 교관들에게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만 상의했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이렇게 군 생활을 할 바에는 군 생활을 그만 두자! 돈으로 진급해서 어떻게 하겠나? 이런 사람은 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것을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

굳은 각오 끝에 과장보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직속상관인 처장실로 찾아 갔다. 처장을 찾아가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처장님은 과장보다 계급은 높았지만 같은 학교 출신이고 과장보다도 1년 후배 이였기 때문이다. 처장님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주셨다. 나에게 '지금까지 과장에게 당했던 반부패 행동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이후 일사천리로 학교장님께 보고하여 과장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조기 전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셨다. 이 과정에서 처장님은 선배장교 뿐 아니라 동기생들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등 곤란을 많이 겪으셨다고 나중에서야 들었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지금도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진급이라는 유혹을 극복한 나 자신에게도 감사!'

'나를 믿어준 가족에게 감사!'

지금까지 내 사연을 보다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은 '다른 곳에서 지금도 나와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이런 사연들이 모여서 반부패 문화가 척결되기를!'하는 마음이다. 상급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용기를 내어 조직의 문화를 쇄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나'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처음에 과장이 선물을 요구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나'에게도 부끄러울 따름이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준 '가족'에게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나를 믿고 조치해 주시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처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는 지금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시는 내가 겪었던 일들을 포함하여 조직 내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렴세상

우 수 상 일반부문 | 김현경

돈보다 정직



"어머,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다니……."

마트 계산대에서 착오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준 것을 주차장에서 발견했다. 다시 계산하려고 되돌아가기에는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다.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닌데 덤으로 얻었다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마음이 찜찜하다. 아이들이 나를 본다. 남편에게 배운 '정직의 연습'이 생각났다. 결국 궁시렁거리며 아이들을 끌고 다시 계산대로 향한다. '어휴, 남편이 나를 제대로 가르쳤네.'

우리가 결혼 할 때 남편은 박사과정에 갓 입학한 학생이었고 나는 작은 회사에 다녔다. 우리는 둘 다 사회 초년생이어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했던, 나름 용기 있는 젊은 부부였다.

결혼 할 때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매일 뉴스에서 들었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가를 직업 경험해야 했다. 신혼집을 남편의 연구실과 나의 직장의 중간에 구하고 싶었지만 그 지역은 집들이 너무 비쌌다. 집을 알아볼수록 희망지역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다음 지하철 역 근처로, 그 다음 지하철 역 근처로 밀려나 결국 지하철

역 7개를 지나 후미진 주택가에 자리를 잡았다.

집을 얻는 과정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한 평생 집 걱정 없이 자랐던 나로서 부모님 그늘이 얼마나 큰 지, 돈이 얼마나 중요한 지 뼈저리게 배웠던 시간이었다.

'어른들이 댓돌에 신발을 올리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고 했어. 아이가 생기기 전에 바짝 모으자!'

결혼 후 나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종잣돈을 만드느냐에 집중되었다. 남편은 연구실에서 월급을 받았고 나도 직장 3년차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이 없이 몇 년 고생하면 대출금도 갚고 전세보증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연스럽게 아이 계획은 무기한 연장되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 나의 원대한 계획은 산산이 부서졌다. 댓돌에 신발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것도 두 개나 한꺼번에. 첫 아기가 생긴 기쁨과 당황스러움을 추스를 겨를 없이 둘째 아이가 확인되었다. 쌍둥이를 임신 한 것이다. 남편은 두 배의 축복이라고 좋아했지만 나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출산과 육아 비용에, 종잣돈을 만들 수 있을지, 양립할 수 없는 주제들로 머리가 복잡했다.

쌍둥이 임신은 고(高)위험군에 속한 임신이라 보통의 경우와 상당히 달랐다. 일반적으로 정상 분만은 40주 전후이지만 쌍둥이는 38주 전후이다. 그나마 정상 분만의 확률도 50% 채 안 될 만큼 조산될 확률이 높다. 34주를 넘겨 신생아가 스스로 호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산을 하면 대부분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 합병증은 또 왜 이리 많은지….이를 대비해서 태아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이조차 어려웠다. 다태아 가입이 되는 보험은 두 개 뿐인데 모두 첫 번째 태아만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쌍둥이 중 첫 번째 아기는 정상이지만 두 번째 아기가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보험을 가입해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이다.

담당 의사는 38주를 채우면 10월이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나 또한 그 전에 아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임신 기간을 최대한 버텨 9월에 출산 하는 것이다. 그러면 34주를 넘기게 되며 아기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진다.

'아기들아 끈질기게 엄마한테 붙어 있어라. 건강하게 34주만 버티자!'

임신 기간 동안 나와 아이들의 건강에 신경 쓰였지만, 조산의 경우를 생각하니 출산 비용도 크게 신경 쓰였다. 얼마 전 인터넷 카페에서 읽은 쌍둥이 엄마의 출산 경험담이 생각났다. "조산을 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수술하고 쌍둥이 두 명 모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니 출산비용이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나는 출산이 정상적으로 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재정을 준비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임신 기간을 더 힘들게 한 사건이 생겼다. 천장을 지나는 수도관이 터졌는데 집 주인과의 입장 차이가 정리 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되었던 것이다. 결국 8월 초까지 집을 비워주고 친정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는 다음 날 내가 할게."

남편의 말에 빛보다 빠르게 머리가 회전했다. 전입 신고기간은 이사 후 보름 안에 해야 하니 8월 중순까지다. 의사의 말대로 조산을 하지 않는다면 9월 중순에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전입신고일자와 출산 사이에 한 달 정도 시간 차이가 있다.

지역구와 출산시기마다 다르지만 서울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내가 살았던 지역은 서울에서 최고로 많이 지급하는 곳인 반면 새로 이사 가는 지역은 지원금이 거의 없었다. 나는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킨다.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고 기존 주소를 유지하다 출생신고를 하면 지원금으로 60

만원이나 받을 수 있었다.

"전입신고를 출산 후로 미루면 어때요? 그러면 출산장려금 6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길어야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것이니 크게 무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찜찜했지만 전입신고를 살짝 늦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 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이런 묘안을 생각해 낸 내가 기특할 정도다. 그리고 지금은 출산 비용에, 이사 비용에 특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출산이 잘못 되어 조산을 하고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난다면, 보험 적용 없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한다. 출산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모르니 최대한 돈을 모아 대비해야 한다. 누가 봐도 이해하고 납득할 상황이다.

"안 돼. 그렇게 되면 위장 전입이 되는 거야."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단칼에 반대한다. 내가 마치 범법자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 나도 상식적이고 교양 있는 여자인데.

"무슨 위장전입 씩이나….굳이 따지자면 지연 전입이죠! 그리고 요즘엔 정치인도 유명인도 다 하는 게 위장전입이잖아요. 흔한 일인데 뭘!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한 달만 미루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애기 낳고 출산지원금도 받으면 좋잖아요. 지금 출산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데..만약에 조산해서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못된 게 옳은 게 되지는 않아. 정직하게 해야 해."

"당신이 나중에 정치할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이건 지혜이고 처세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그럴싸한 이유로 설득했지만 남편은 완강했다.

"지금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 거 알아. 60만원 적은 돈 아니야.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이들의 출생을 통해 받는 거잖아. 그걸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늦추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의 출생을 떳떳하지 못하게 이용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의 귀한 출생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이제 부모 되는 거야. 앞으로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선택할 거야? 무슨 선택이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텐데 제대로 선택해야 하지 않겠어? 정직에도 연습이 필요해. 크든 작든 정직하게 선택하는 연습이 되어야 우리의 성품이 되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칠 수 있지. 물론 이번 일은 아이들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하자. 돈보다 정직이야. 60만원이 당장은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지나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대신 내가 용돈 60만원어치 아껴 쓸게."

'쳇. 아껴봤자 얼마나 아낀다고…. 혼자 고고한 척 하기는. 성인군자 났네. 그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누가 상이라도 준대?'

불만도 생기고 내심 아쉬운 마음에 투덜거렸지만 남편의 옳은 말에 토를 달수가 없다. 결국 남편의 주장대로 출산장려금은 포기하고 이사하자마자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남편 말대로 한 것은 정말 잘 한 일이었다. 비록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부정직한 일에 연루되지 않게 했다는 안도감에,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유혹을 이겼다는 작은 승리감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뿌듯함에, 스스로가 기특했다. 그리고 도덕적인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남들은 처세라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정도를 따르는 모습이 믿음직했고 그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감사했다.

남편의 정직함 때문이었을까. 하늘이 도왔는지 의사의 예상을 넘어, 나는 38주를 꽉 채워 건강한 아이들을 정상 분만했다. 나도 건강하고 아이들 또한 건강했다. 38주 내내 걱정했던 조산도 없었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일도 없어 비용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지출했다.

그 때의 일로 나는 큰 학습을 했다. 적든 그렇지 않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생기는 돈은 탐하지 말자. 비록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처세라고 말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들 쌍둥이의 출산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한다. 정직함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있다고.

내가 남편에게 배운 돈보다 정직을 우리 아들들에게도 가르치고 싶다. 물론 엄마의 위장 전입 현혹 사건은 쉿! 비밀에 부치고 말이다. 청렴세상

우 수 상 일반부문 | 장미자

결자해지 체악지정



휴대폰에 큰오빠 집 전화번호가 떴다. 흥! 무슨 염치로 내게 전화를 했담? 콧방귀를 뀌며 받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3분 간격으로 전화가 계속해서 왔다. 무시하자 그냥 무시해버리자.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만 전화를 받고야 말았다.

"동생아,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리로 와주면 안 되겠니?"

"나 돈 없어요. 그만 끊어요."

"아...아니...돈 달라는 소리 아니야. 진짜 아니다."

마저 듣기도 전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지만 아침 내내 나는 얼빠진 사람 같았다. 신경 쓰지 말자, 아무 신경도 쓰지 말자. 속으론 도리도리 이런 다짐을 하면서도 몸은 어느새 큰오빠네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시퍼렇게 날 선 미움이었고 사납게 악악거리는 원망이었다. 그래도 한 배를 타고 난 형제니까, 그래도 같은 피가 흐르는 남매니까, 이러한 인과(因果)적 나만의 독백된 용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되레 허용되지 않았다. 분명히 바탕에는 지극히 사랑이 깔려있는 애증(愛憎)일거라 믿고 또 믿어보았지만 세월이 갈수록 큰오빠에게로

건 미움과 원망만이 한데 섞인 증오! 이 뿐이었다.

고등학교 선생인 큰오빠, 누구보다 잘났다고 거만함이 짝이 없던 큰오빠, 현관 앞에 선 큰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다. 얼굴에는 기미가 거뭇하고 어깨는 흡사 삶은 시래기처럼 축 쳐져 있었다. 올케 역시 비쩍 마른 나뭇가지 같아 보였다.

"와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할게. 둘째가 많이 아프다. 5학년 때 소아당뇨 판정 받았던 건 너도 알지? 한 달에 병원비며 입원비며 약값이 몇 백만 원이나 들어가더라. 어디 내 월급으로 감당해 낼 수가 있어야지. 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학교 공금을 몇 차례 횡령했다."

"선생이 무슨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 할 수 있어요?"

"서무과 과장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둘이 한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하고 돈을 빼돌려 같이 나눠 가졌지. 그런데 공무원 감사에 걸려버렸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은 혹시 걸릴 걸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저는 쏙 빼고 나한테만 옴팡 씌워버린 거야.

너 알다시피 올케는 사회며 세상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없으면 네 아픈 조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서운했던 게 있다면 모두 풀고 이 오빠를 도와주면 안 될까? 올케언니하고 같이 애를 돌봐주면 하는데…."

"그래서 오빠는 어찌 할 생각인데요?"

"내일 아침 필리핀으로 밀항을 할까 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소. 밀항한다고 칩시다. 평생 험한 일이라곤 안 해본 사람이 대체 범죄수배자 신분으로 어떻게 산단 말이요?"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나는 큰오빠와의 대화를 잠깐 멈추고 조카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었다. 스물셋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고모! 하고 불렀다. 두 다리는 괴사가 진행되어 시커멓게 변해있었고, 배에는 투석 줄을 꽂느라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어머니는 앵두꽃 활짝 핀 어느 날 큰오빠를 서울로 유학 보냈다. 그리고 두 해 후 열여섯 언니는 먼 부산의 봉제공장 기숙사로 팔아넘겼다.

똑같은 자식 둘이 홀홀 낯선 객지로 나갔는데, 뒤란 앵두나무 아래 장독대 정화수 앞에 선 어머니는 늘 큰오빠만 기도했다. 부뚜막 위에도 언제나 큰오빠 밥만 고봉으로 한 주발 떠놓았고, 이른 아침 까치가 울 때마다 변함없이 큰오빠 편지만 목 빼어 기다렸다.

서울 갔던 큰오빠가 부산으로 내려간 뒤 남은 식구들도 모두 부산으로 이사를 왔다. 그리고 얼마 후 큰오빠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암으로 눈을 감았고, 몇 년 지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스물 셋 언니는 시집을 갔고, 스무 살 나는 큰오빠 집에 얹혀사는 것이 불편해 나왔다.

기운 잃은 큰오빠를 대신해서 경찰이다 검찰이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총 동원하여 내가 더 사방팔방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교 외에 사회물정이며 법에는 사실상 어두운 큰오빠에게 단호히 말했다.

"오빠, 죄를 지었는데 처벌이 무서워 현실을 피하고자 도피한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찌합니까.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오빠가 벌인 일 오빠가 수습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요."

"네 말이 맞긴 하다만 너무 두렵다."

"벌을 받는 것보다 죄 짓는 일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내게 지은 큰오빠의 죄들에 대해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라는 듯, 내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갔다.

"감사원으로부터 소환장이 왔으니 일단은 제 날짜에 가서 감찰조사를 받도록 해요. 모든 건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나이는 내가 훨씬 많아도 세상 경험은 네가 나보다 몇 배는 많으니 네 말 들을게."

세상 경험,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그 더러운 세상 경험들을 오빠 덕분에 나 참 많이 하며 살았다는 말은 속으로 꾹꾹 눌러 삼켰다.

아무튼 큰오빠는 수염 까칠한 몰골로 감사원에 다녀왔다. 제발 봐달라고 읍소하며 새파랗게 젊은 감사관 앞에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그리고 나더러 탄원서를 써 달라 했다. 나는 탄원서를 쓰려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한다며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말해보라 했다. 잠시 눈동자가 떨리는가 싶더니 큰오빠는 나직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2008년도였지. 둘째가 그 때 당뇨 합병증이 막 시작되더라. 위장장애에 다리 골절에 당뇨망막증까지 와서 수술이 급했어. 그런데 막상 수술비에 입원비에 약값에 돈이 있어야 말이지. 그때 서무과장에게 술자리에서 푸념을 한 것이 이 일의 시작이었다. 제발 투석만은 안 하기를 바랐는데, 얼마 뒤 배에 구멍을 내고 카테터를 연결해 투석이 시작되었다. 그 날은 둘째 생일날이었다. 어쨌든 돈을 마련하느라 또 서무과장과 합작해 돈을 빼냈다. 처음에는 덜덜 떨리더니 어차피 시작된 거, 횟수가 거듭될수록 덤덤해지더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횡령금액이 1억이나 넘는데 이 돈 모두를 애 병원비와 수술비에만 썼다고요?"

"이제 와서 너한테야 숨길 수 있겠나. 애한테 들어가는 돈 말고 생활비나 다른 데도 쓰긴 썼다."

"저 좋은 차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혹시 차사고 집 사는데도 쓴 거 아닌가요?"
"그래 맞아. 나이 쉰이나 넘었는데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정말 애절히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보살핌 받고 싶었다.
그러던 중 나이 스물둘에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 체육관 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체육관 문을 닫아버리더니 만날 술이나 퍼 먹고 다니며 건달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 부모가 집으로 들어오라 했고 나는 만삭이 되어 시대에도 없어진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오빠,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으나 난 모르니 너 알아서 해라는 식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시집가서 연락이 끊긴 언니,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할 길이 없었다.

그나마 애가 백일이라고 큰오빠 내외와 조카가 왔다. 사돈댁에 첫 걸음을 하면서 흔한 과일봉지 하나 없이 겨우 반 돈짜리 금반지 한 개 달랑 사왔지만, 나도 내 편이 있다는 생색만으로 기뻤고 든든했다.

그리 반나절 큰오빠 식구들은 예의와 범절을 깡그리 무시한 민폐를 다분히 끼친 후 도로 내려갔다. 시아버지의 새 자전거를 부러워하던 조카에게 '가져갈래?' 빈 소리 한 애 아빠의 실수였을까? 큰오빠는 시아버지의 새 자전거를 날강도같이 들고 갔다.

그날 저녁, 나는 애 아빠로부터 진창 매타작을 당했다. 거지같은 것들이라는 말을 열 번도 더 들으며. 모욕과 구박은 점점 더 심해져갔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두 손이 허리띠로 묶인 채, 밟히고 눌리고 졸리는 폭행 또한 매일같이 가해졌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러다 내가 병신이 되거나 자살을 하거나...밤 열두 시, 또 나를 두들겨 팬 후 그 작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맨발로 실성한 듯 뛰쳐나왔다. '아가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하지 말거라.'

큰오빠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나는, 탄원서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어떻게 써야 할까? 그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한 날조(捏造)된 내용과 위장(僞裝)의 눈물로 호소해야 하나, 아니면 동기야 어떻든 교육공무원으로써 청렴(淸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不正腐敗)를 일삼았던 지난날에 대해 이제라도 양심을 지키며 곧이곧대로 횡령금의 용처를 밝혀야 하나. 잠시 망설이고 고민했지만 나는 이내 양심을 택했다.

- 존경하는 감사장님,

저의 오빠는 너무도 크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횡령한 돈을 딸의 병원비와 수술비와 입원비 등에 썼지만, 아픈 딸을 핑계 삼아 돈을 빼돌려 차를 바꾸고 집을 사고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장님 오빠가 학교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면 제 조카는 어쩌면, 나이 스물도 채 되기 전에 벌써 죽었을 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교 돈을 횡령한 오빠의 죄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아픈 딸을 둔 아버지의 부정(父情) 만은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바른 부정(父情)에다 오빠의 그른 부정(不正)을 끼워 넣으며 안위(安危)의 시간들로 지내왔던 제 오빠가, 이제 앞으로 옳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셋방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살게 되자 큰오빠가 연락을 해 왔다. 야속했지만 또 한 편으로는 반가웠다. 하지만 '돈 좀 빌려주라.' 큰오빠의 목적은 동생과의 반가운 해후가 아닌 오직 돈이었다. 마음 약한 나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몽땅 끌어 큰오빠에게 주었다.

다시 몇 달 뒤, 웬일로 술 한 잔 하자는 큰오빠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 이제는 큰오빠와 다른 남매들처럼 사이좋고 우애 있게 살 수 있게 되나 보다...단단한 나의 착오였다. 본인이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심장까지 빼 줄 듯 그렁거리는 불쌍한 어조와 제스처, 바보 같이 멍청한 나는 다음 날 남에게 빌려 돈 수백만 원을 큰오빠 계좌로 부쳐 주었다.

큰오빠가 돌려준다던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내가 전화를 했더니 '없는데 어쩌냐, 너는 자식 안 키우고 사니까 내 어려움을 모른다.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큰오빠는 전화를 딸깍 끊어 버렸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채무독촉을 해 왔다.

큰오빠가 쓴 돈을 내가 대신 갚느라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지 과연 알긴 알까. 에라이 당신은 정말이지 지금부터 내 오빠가 아니야. 언젠가는 큰오빠와 나도 체악지정(棣鄂之情)을 나눌 날이 오겠지? 아니다 다 부질없는 바람이었다.

내가 빽빽하게 쓴 다섯 장의 탄원서를 읽던 오빠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흘러내린 눈물방울 속에 어머니가 잠시 보이는 것도 같았다.

그나마 다행히 큰오빠의 횡령사건은, 어떻게든 변제를 이행하겠다는 약속 하에 학교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다. 그리고 큰오빠는 즉각 퇴직금 한 푼 없이 해임됐다. 28평 아파트도 처분이 되었고 큰오빠네 식구는 올케 친정인 충청도 시골로 이사를 갔다. 큰오빠는 그곳에서 처남 과수원 일을 돕고 있고, 조카는 꼼짝없이 매일 하는 12시간의 투석 때문에 욕창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랑한 날들보다 미워하고 원망한 날들이 더 많았으므로 지난날 서운했던 편린(片鱗

)들이 욱하고 떠오를 때 여태 많지만, 그러나 큰오빠를, 아니 큰오빠의 입장에서 가히 더 이해해보려 한다. 살아오는 동안 큰오빠라고 어디 내게 서운한 것 하나 없고 나 때문에 상처 된 일 없었으랴. 내년 봄, 아니 후년 봄이라도 고향 뒤뜰에 앵두꽃이 피거든 우리 그때 꼭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큰오빠에게 문자를 해 본다.

'오빠 잘 지냅니까?'

'마음만은 편하다. 저번 달에 앵두 따서 술을 담갔다. 앵두주를 보니 네 생각이 나네.'

청렴세상

장 려 상

공직 부문

56 원칙과 양심, 나를 떳떳하게 하는 힘 | 이숙경

63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 | 이희택

68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요? | 지철환

일반 부문

74 돼지 저금통 | 김계석

80 인생을 바꾼 청렴 | 김세훈

85 향기 나는 언론인 | 김지윤



장 려 상 공직부문 | 이숙경

원칙과 양심, 나를 떳떳하게 하는 힘



"저는 지금 이 금액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데요. 다만 계장님이 올리라고 하시는 건 올린만큼을 계장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인 건 아시죠? 이 금액 정도면 한 삼십 정도 올리면 되겠네요."

5년도 더 지났지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 날 있었던 모든 대화를 또렷이 기억할 만큼 2009년 11월 30일은 내게 충격적인 날이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른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기록연구사로 공무원이 된 나.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기록연구직이라는 전문직이었기에 남들보다 더 철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늦은 나이로 공직에 들어섰기에 더 잘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잘하고 싶다는 것이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는 일은 아니었다.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은 작은 일 하나에도 진심을 담고, 누구에게든 공손하고 친절한 그런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사소한 기본적인 일이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가. 그렇기에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일이 있었다. 2009년 11월 30일, 공무원이 되고 만 2

년이 채 되지 않은, 누군가의 말처럼 임용장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때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우리 기관의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느 일이 그렇지 않겠냐마는 기록물 관리는 특히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다.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간, 장비가 필요하다. 문제의 발단은 장비 중 하나인 기록물 보관장을 구입하는 데서 발생했다.

기록물 중에는 외국이나 다른 기관과 교류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업무 도중에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나 모양을 가진 행정박물이 있다. 행정박물은 모양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보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행정박물을 전시도 하면서 보관도 잘 할 수 있도록 보관장을 제작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가구업체로부터 원하는 보관장의 형태대로 제작할 경우 금액이 얼마인지 견적을 의뢰하였다.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우리 부서에서 가구를 구입할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며 옆의 직원에게서 소개를 받았다. 공무원 입문 2년차, 아는 것이 없으니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공부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서 할 때였다. 예산을 세우고 배정받아 지출 하는 방법 같은 행정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을 배우던 시기였다.

행정박물 보관장 구입 명목으로는 1,2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받은 견적서의 금액은 990,000원이었다. 그러나 달라는 금액대로 다 주면 그게 어디 물건 사는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대견하게도 930,000원에 견적을 다시 받았다. 6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그 정도면 나름 적당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도 금액을 깎았지만 회계부서에서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더 깎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속으로 흐뭇해하며 물품구입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견적서를 첨부해서 결재를 받기 위해 1층에 있는 계장에게 갔다. 그 당시 나는 계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아닌 기록물 보존서고와 붙어 있는 사무실에서 따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서류를 본 계장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말도 없이 나에게 업체 사장을 부르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견적을 너무 비싸게 받은 건가? 직접 가격을 깎으려고 저러시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하지만 바로 그 앞에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진 못했다. 상사의 말에 그렇게 바로 묻는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대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는 대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다. 어차피 가구업체 사장이 오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조용히 나와서 전화를 걸었다. 계장님이 뵙고 싶어 한다고 말이다.

가구업체 사장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나만 모르고 있었지, 가구업체 사장과 계장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나니 좀 꺼림칙했다.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주고받더니 계장이 업체사장에게 "요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장사하기 마이 힘들재? 가정집에 장식장을 하나 사도 돈 백 만원은 하는데 930,000원이 뭐꼬. 이렇게 받아서 뭐가 좀 남는 기 있나?"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업체 사장은 "괜찮습니더."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계장이 이번에는 사장이 아닌 나를 쳐다보며 "이 선생, 이래 갖고 안 된다. 경기도 안 좋은데 좀 올려줘라.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둘이 나가서 가격 좀 올려서 견적서 다시 작성해 온나." 이러는 것이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내가 뭘 잘 못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장을 앞에 두고 바로 "안 됩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더구나 사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터였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장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서도 그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지가 않았다. '가격을 올라주라고? 왜? 손님이 물건 사면서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기만 했다. '내가 깎아달라고 하니까 사장이 계장한테 이런 싼 금액으로는 못한다고 전화를 했나? 그래서 계장이 가격을 올려주라는 건가?' 혼자서 별의 별 생각을 다하다 결국 사장에게 다른 말 다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얼마나 올려드리길 원하세요?"

그러자 사장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저는 지금 이 금액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데요. 다만 계장님이 올리라고 하시는 건 올린만큼을 계장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인 건 아시죠? 이 금액 정도면 한 삼십 정도 올리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계장이 사장을 부르라고 했던 이유가 견적 금액을 높여서 그 차액을 자기가 받아 챙기려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게 바로 뉴스에서나 보던 리베이트였던 것이다. 금액이 적긴 했지만 분명 그것은 계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이었다. 930,000원짜리를 삼십 만원 올린다면 비율로는 약 30%인 셈이다. 금액이 적으니 삼십 만원이지만 만약 단위가 커지면 30%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된다. 천만 원짜리 계약이면 300만원이고, 일억 짜리 계약이면 3천만 원인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업체사장에게 떨리는 내 가슴을 들킬 수는 없었다. 옆에서 씩 웃으며 얘기하는 눈빛이나 품새가 공무원을 뒷돈이나 받아먹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알면서 뭘 그러느냐는 듯이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 더욱 참담한 것은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내게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았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서둘러 사장을 돌려보냈다.

막상 보내놓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계장은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돈과 관련하여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소문들이 공공연히 들렸었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미리 속단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자고 생각했었던 터였고, 그동안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았기에 같이 근무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소문으로만 듣던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방금 발생한 것이다. 만약 계장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누군가는 계장의 괴롭힘에 원형 탈모증이 생겼고, 누군가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도 들렸었다. 그동안은 소문으로만 흘려들었지만 이제 막상 내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두려워 양심상 원칙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괴롭힘에 대한 걱정과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1시간여의 시간이 지났다.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시간이었다.

다시 계장 앞에 섰다. 그리고 이전 내밀었던 견적과 서류를 글자 한 자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계장 책상위에 펼쳐 놓았다. 최대한 목소리에 감정을 싣지 않고 아주 담담하게,

"계장님, 가구 사장과 얘기해 봤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손해 보는 것도 없고 그 가격이면 적정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액 변동 없이 원래 견적 그대로 다시 결재 올렸습니다."라고 계장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래? 거 참……."하고는 나를 한 번 스윽 보더니 계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내가 가져 간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계장의 얼굴에는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는 묘한 표정이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고민 끝에 내가 생각해낸 결론이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원래대로 가는 것. 내가 못 올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업체사장이 안 올려줘도 된다고 말했다는데 뭐라고 할 것인가. 물론 계장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겠지만, 도저히 양심상 계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었다. 계장에게는 미운 털이 박히겠지만, 그게 양심을 지킨 대가라면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계장도 불법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으니 나는 그의 은인 아닌가,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이다. 이후 계장은 더 이상 나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거나 다행히도 그 일로 인해 괴롭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를 볼 때마다 뜬금없이 "요즘은 정말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살 수가 없어"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고 나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조용히 일을 마무리 지었다. 만약 그때 계장이 두려워 리베이트를 용인했더라면 그게 덜미가 되어 나는 계속 계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부정한 공무원으로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자 했기에 나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떳떳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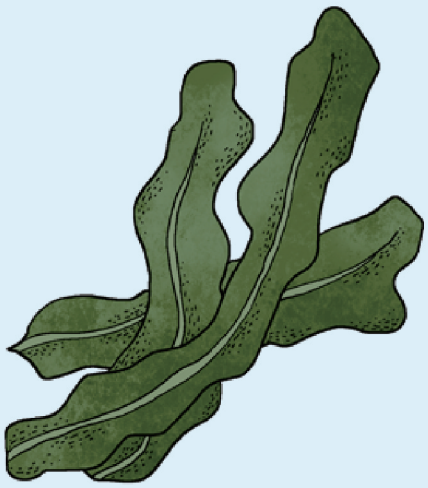
공무원이 되기 전 면접시험 공부를 할 때 예상 질문 가운데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치고 보니 책에 나온 정답처럼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누구나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어지럽고 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법과 원칙을 얘기할 수 있을까.

노자 〈도덕경〉에 "지족불욕 (知足不辱) 지지불태 (知止不殆) 가이장구 (可以長久)"라는 말이 있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 날을 교훈삼아 오늘도 나는 양심이 지향하는 대로 떳떳한 공무원의 길을 간다. 청렴세상

장 려 상 공직부문 | 이희택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



1980년 12월말,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우연히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집을 찾아주고 그 대가로 500원을 받았다.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나는 다시는 금품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일은 지금까지 나를 청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날 저녁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1980년 추운겨울 내가 공직에 들어와서 처음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총각인 나는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동사무소 당직실에서 먹고 자고 하였다. 동사무소 당직실은 오래된 흑백 TV와 삐거덕 거리는 침대, 그리고 검은색의 전화기가 있었으며, 세면장에서는 온수가 나와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당직실은 나의 집이며, 숙소이며 근무지였다.

그 날도 찬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밤 10시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당직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소리인지, 아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가는 "덜컹 덜컹"하는 소리가 한두 번 났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TV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계속해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나는 귀찮다는 듯 중얼거리면서 현관문 쪽으로 나갔다. 그때 어두컴컴한 현관에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양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늦은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손을 호호 불면서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말하였다. "아저씨 우리 딸집을 찾는데 어둡고 컴컴해서 집을 못 찾겠습니다, 꼭 좀 가르쳐 주이소……." 하는 것이었다.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이어요?"하고 묻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봉투를 꺼내면서 나를 보고 읽어 보라고 하였다. 본인은 글을 모른다면서…….

편지봉투에 기재된 주소는 동사무소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다. 할머니께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집의 위치를 설명해 드렸다. 그러고 난 후 혼자서 찾아 가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근심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러고 한참 후까지 소식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쯤 딸집에 도착했으리라 생각하면서 동사무소 전체 소등을 하고 당직실에서 잠을 청하였다.

막 잠이 들었을까 꿈속에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났다. 나는 혹시나 싶어 이불 속을 기어 나와 플래시를 들고 현관문 쪽을 비췄다. 그러자 그곳에는 조금 전 그 할머니가 똑같이 머리에는 짐을 이고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마치 귀신과 같이…….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딸집을 못 찾았어요?"하자 할머니는"도저히 못 찾고 지금까지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왔어요. 아저씨가 좀 찾아 주이소.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되면 이곳에서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만 있게 도와 주이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난감하였다. 두 가지다 어려운 제안이다. 그때 시계가 자정을 넘어 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 이 앞에 여관이 있으니 그 곳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찾아보세요."

"안됩니다. 오늘 저녁 꼭 가야 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 아기를 낳았는데 미역국을 끓여줘야 합니더. 그리고 여관비도 비싸고…."

"조금 전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내일 아침까지 있게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깐 여관으로 가세요."

"그건 하도 급해서 해본 소리이고 오늘 저녁 가야 합니더. 좀 도와 주이소."

그 후, 한참을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나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500원 권 지폐였다.

"할머니 이것을 왜 저한테 주는데요."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하니,

" 그 돈으로 내일 짜장면 사먹고 이 늙은이 한 번만 도와 주이소."

그 때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정말 딱한 것일까? 아님 돈이 아까워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면 추워서였을까? 순간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직접 집을 찾아 드리는 것이었다.

"할머니 갑시다. 내가 집을 찾아 드릴 테니."하면서 500원 권 지폐를 슬쩍 집어넣었다. 나의 호주머니 속으로…. 그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요, 수치임에 분명하다. 정말 창피스러운 사건이다.

그리고 동사무소 현관문을 자물통으로 걸어 잠그고 할머니의 보따리 하나를 받아들고 찬바람을 맞으며 앞장섰다. 추운 겨울 12월 말의 자정이 넘은 시간은 정말 삭막하고 추웠다. 이 추운 겨울에 밤늦도록 4시간 정도를 거리에서 헤매고 다닌 할머니를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시골에 계시는 늙은 어머니가 생각났다. 오늘은 유독 추운 밤이다.

약 30분을 걸어서 마을의 좁은 골목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조그만 집의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집은 불빛하나 없이 컴컴하고 인기척이 없었다. 여러 번 불렀으나 대답은 없고 해서 되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집 뒤쪽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여왔다.

오늘 태어난 아기 울음 소리였다. 사람 한 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 뒤로 돌아가니 쪽방에서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여자 한 분이 어린아이를 안고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봇짐을 밖에다 내려놓고 달려가더니 자기 딸인 산모를 잡고 엉엉 우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밤새 찾아 다녀서 춥고 배고프고, 빨리 달려오지 못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까,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계속 울기만 했다. 그래서 돌아갈까? 조금 더 있다가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갈까? 생각하고 있던 중 약 5분쯤 지나서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오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착한 아저씨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왔다."정말 흐뭇하였다. 왜 진작 나서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추가로 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나의 뇌리에서 떠날질 않고 있다.

"오늘 오면서 미역 살려고 500원을 가져 왔는데 그만 저 아저씨 줬다 아이가, 그래서 미역 못 샀다. 그렇지만 시골에서 가져온 국거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국을 끓일 테니 미역국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나는 망치로 머리를 꽝 맞는 기분이 들었다. 산모에게 끓여줄 미역 살 돈을 내가 받다니…. 그러나 돌려줄 용기가 나질 않았다. 분위기상 방에 들어가서 돈을 줄 수도 없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돈을 돌려 드려도 받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와서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동사무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산모 집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항상 500원 권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빨리 돌려 드려야지하고 생각했다.

3일후 내가 다시 찾아간 산모의 방은 잠겨 있었다. 주인을 찾아 물어보니 "할머니가 산모를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책감에 온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받은 돈 500원은 끝내 돌려주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그 소중한 산모의 미역국 값을….

그 이후 공직생활 동안 항상 그 돈 500원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금품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과 다짐을 하고 청렴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골 할머니로 부터 받은 사례금 500원이 할머니와 산모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나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 평생의 청렴정신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쯤 그 할머니는 돌아 가셨겠지, 그때 그 산모는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청렴韓세상

장 려 상 공직부문 | 지철환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요?



책으로 쓰면 한 권의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청운의 꿈을 안고 갓 들어온 젊은 경찰관은 서울 역전파출소에 첫 발령을 받았고, 관할엔 유곽이 있는데 명절이면 포주가 돈 봉투를 들고 왔다. 그때 파출소장님이 돈 봉투를 거절하시며 초임 순경에게 일장 연설을 하셨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비리 경찰은 교도소로 가는 지름길이요!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청렴하게 근무한다면 절대 도중하차는 없을 것이다."

이후 근무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황금이 나를 유혹 할 때마다 소장님의 말씀과 "절대 돈 받지 마라 !"고 하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내 모자에 "청렴결백"이라고 써 놓고 근무 때 마다 보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며 오직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자!"로 굳게 다짐 했었다. 그래서 인지 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도움을 받지 않고 서울 마포구에 월세 방을 얻고 혼자 자취를 하였다. 여동생의 소개로 만난 여자 친구와는 어느 새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순경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결혼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심하였다. 얼마 후 야간근무 중 포주 부인을 "윤락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단속 중 포주 부인과 몸싸움이 있었다. 포주는 나에게 500만원을 주면서 “사건을 봐 주지 않으면 성추행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난 현금 500만원을 보는 순간 자꾸만 “결혼자금”이 떠올라 돈을 받고 싶었다.

‘윤락행위를 봐주는 대신 돈을 받으면 고소 협박 건도 없어지겠지.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알게되면..’. 온갖 상상과 두려움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더라도 포주를 형사입건하지 않으면 마음은 편하나 직무유기가 되고, 내가 그 돈을 받으면 평생 공직생활 중 오점이 남고 포주에게 코가 꾀어 끌려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과감히 포주를 형사 입건 하였다.

포주는 벌금 500만원과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화가 많이 난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고, 며칠 후 법원에서 고소장이 도착 했다. 고소 내용은 “경찰관 처벌과 위자료 및 소송비 3천만 원을 배상 하라”는 내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허위 목격자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주위에서는 경찰관이 “독직폭행”으로 소송에서 패하면 구속된다고 하여 경험이 부족한 초임 순경이라 너무 두려웠다. 그 동안 모아 놓은 결혼 자금과 은행 대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지옥 같은 1년 동안의 기나긴 싸움 끝에 재판에서 이겼다. 그 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입건하고 그 동안 시달린 정신적인 피해와 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을 배상청구 했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 돌리는 바람에 재산 압류도 못하고 결국은 3천만 원을 날렸다. 이젠 난 어떡하라고? 결혼 날짜는 다가왔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혼을 미루자 여자 친구 부모님은 파혼을 선언했다. 그 때 여자 친구가 울면서 말했다.

“오빠 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못해, 하지만 오빠가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릴게.”

그 한마디에 용기가 났다. 하지만 당장 머무를 곳이 없었다.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시절 우연치 않게 만난 은행장님의 도움으로 대출을 하고, 그 분의 소개로 서울 봉천동에 작은

월세 방을 마련하여 그로부터 2년 후 어렵게 결혼을 하였다. 달콤했던 신혼 생활도 잠시 뿐 시골에 홀로 계신 노모의 지병이 악화되어 아내는 홀어머니를 모시자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 방 2칸 월세 방이 나와서 갓 태어난 지 3개월 된 어린 딸과 함께 이사를 갔고 집 근처인 은평 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노모는 날이 갈수록 병이 악화되고 당뇨 합병증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어 병원 주치의는 치료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할아버지께 배운 돌팔이 한의사의 기질과 경험을 발휘하여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엉겅퀴로 어혈을 치료하고 홍삼으로 원기를 회복 하고 극진히 간호하였다. 1년 후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의 눈은 0.6으로 회복 되었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의사는 깜짝 놀라며 "기적"이라고 말했다.

초임 순경시절 포주와의 기나긴 싸움이 끝났나 싶었었는데, 결국 후유증이 남아 "스트레스성 척추염"이란 희귀한 병을 얻게 되었다. 설상 가상으로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보증금를 올려달라고 했으나 지불할돈도 없었다. 이대로 있다간 지금까지 힘들게 지켜온 청렴한 공직생활을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다. 그런 나를 지켜 본 직장 동료가 경기도 의정부에 유명한 한방병원이 있다고 하여, 나는 또 다시 팔십이 다된 병든 노모와 처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경기도 동두천으로 이사를 갔고 난 연천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척추염을 치료하기 위해 3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하고 3년 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완쾌되지 못하고 목과 어깨는 점점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 의사가 강원도 원주에 유명한 한의사가 있다고 하여 난 또 다시, 갓 태어난 막둥이 아들과 함께 낯선 땅,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큰 딸애는 나에게 "아빠 우리 또 이사 가요?"라고 말했다. "응, 원주는 교육의 도시야. 여기서는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린 대가족이라 월 55만원짜리 큰 방으로 이사를 갔고 난 횡성경찰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횡성경찰서로 발령이 나자, "혹시 돈을 먹고, 징계를 먹고" 발령이 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지는 동료들도 간혹 있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의연하게 "강원도에 약초가 많아 약초도 캐고 여기서 살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막상 와 보니 내 월급으로는 노모의 병원비와 내 병원비를 충당하고 어린아이 3명을 포함한 6명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 은행 대출금은 1억이 넘어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큰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었다. 그동안 한 번도 학원을 보내지 못했던지라 학교 성적이 떨어져 아빠에게 하소연 하였다.

"아빠 ! 친구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나만…….학원에 안 보내줘요?"

"응, 학원에 가면 학습 능력이 떨어져. 언젠간 스스로 공부해야 해 !"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선, 그날 밤 옥상에 가서 안 피우던 담배를 피우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 몰래 18k 금반지 2개를 팔았다. 두 딸들에게 영어 수학 학원을 1개월 동안 보냈고 그 것이 마지막 학원이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옷을 입던 중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결혼반지 어디 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네요?"

"응, 요즘 도둑이 많이 들어와서 파출소에 잘 보관하고 있어"라고 얼버무렸다.

아내는 지금도 결혼반지를 파출소에 보관한 줄 알고 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개인 회생"신청을 할까하고 아내에게 상의를 했더니 그렇게 되면 월급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 했다. 고심 끝에 산에서 약초를 캐서 팔기로 하고 쉬는 날이면 아내와 함께 강원도 깊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서 새벽시장에 팔아 간간이 생계를 유지했다. 하루는 야근을 하고 다음날 아침 퇴근을 하여 집에 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오늘은 어느 산에 갈 거예요? 강원도 영월엔 더덕이 많이 있다는데요?"아내는 어느새 약초꾼의 마누라로 길들여진 지 오래다.

한번은 인터넷으로 워커를 구입하여 아내에게 주었더니,

"안 그래도 등산화가 닳아서 발이 미끄러웠는데 고마워요"라고 정말 좋아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팔이 너무 얇아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못난 남편을 만나 약초를 캐며 고생을 하고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모셔서 그런지 내 팔 만큼이나 두꺼워 지고 그 곱디고운 손이 거칠어지고 손마디 굳은살도 생겼다.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내가 경찰 공무원이란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생각에, 옥상에서 혼자 괴로움에 빠져 "개인회생"신청을 할까 고심하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지병 덕분에 홍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홍삼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고, 마침 이모가 금산에서 인삼을 재배하기에 홍삼을 판매하여 지금 어려운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막상 홍삼 가게를 구상 하다 보니 막대한 돈이 필요해 은행에 갔으나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아내가 직접 홍삼 제조공장을 열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올렸더니 단 한 사람도 구입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홍삼을 사러 온 고객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쉬는 날이면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아내의 홍삼 제조 일을 도와주면서 보낸 시간이 어느 새 8년째다. 이웃들은 내가 약초꾼인 줄 알고 있다.

내가 겪고 있는 "강직성척추염"이라는 병이 악화되면 온 몸이 굳고 결국은 전신 마비까지 온다고 한다. 걸을 때 항상 내 목은 ET처럼 앞으로 나왔고 어깨는 굽고 비가 온 날이면 다리를 절게 되었다. 순찰차를 타고 내릴 때 마다 허리와 목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마다 "너는 왜 목이 휘었느냐? 등이 굽었느냐?"말한다. 하루라도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어 6개월간 병원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홀어머니와 아내는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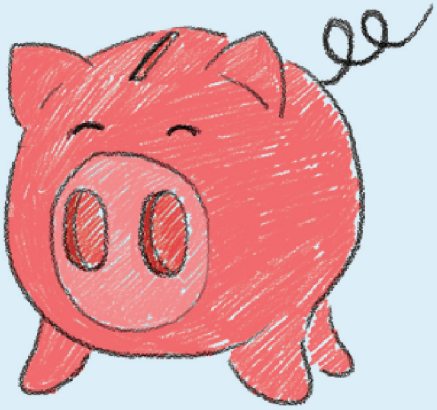
하지만 경찰직을 그만 둘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가슴 속엔 눈물을 흘렸다. 세월은 흘러 겨울이 지나가고 얼어붙은 내 가슴 속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곳

"횡성경찰서에서 근무한 지 5년이 넘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불우이웃을 돕고 때때로 혼자 계시는 노인에게 보약을 건네곤 했다. 그것 때문인지 경찰서에서 발간하는 홍보 책자에 내 이야기가 실렸다. 경찰로 근무한 18년 동안 경찰서 일곱 곳을 옮겨 다녔고, 다섯 번 이사를 했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의 범죄자를 검거 한 덕에 지휘관 표창장을 37개 받았고 열심히 근무 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 했는데 "청렴"을 지켜온 덕분에 경위로 승진을 하였다.

아내는 "그동안 힘든 일만 있었는데 이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네요"라고 말했고, 어머니께선 "지금까지 힘들게 청렴을 지켜 온 결과"라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셨기에 나 역시 가슴이 뿌듯했다. 나를 괴롭히는 병과의 싸움은 계속 되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동안 나의 청렴은 계속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청렴韓세상

장 려 상 일반부문 | 김계석

돼지 저금통



가끔 시내버스를 타면 나도 모르게 차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눈이 간다. 승객과 기사님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이라지만 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지만은 않다. 특별히 나의 오래전 경험으로 인해 CCTV가 단순한 기록장치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5년 전 나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디딘 직장에서 가장 나이 어린 버스 기사였다. 지긋한 나이의 아저씨들 사이에서 서른 살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운전기사였다. 시내버스 운전은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입사 후 운전기술과 서비스 등 여러 교육을 받아야 했고 선임과의 인수인계도 까다로웠다. 일주일 이상 선임 기사의 차에 동승하여 운전을 배우고 노선과 요금도 익혀가며 여러 노하우를 습득해야 했다.

교육을 받던 어느 날 한 기사님이 조용히 날 불렀다.

"버스 운전 처음 하지? 운전이라는 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게 많아."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버스 요금의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이었다. 지금이야 버스에도 몇 개씩 CCTV가 설치되어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기사님도 없겠지만, 그 당시는 막 CCTV를 설치해 가는 시기여서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있었다. CCTV가 뒤에까지는 보이지 않으니 뒷좌석 손님 차비는 슬쩍 해도 된다거나, 화면 해상도가 안 좋으니까 걷은 차비를 대충 넣는 척하며 손 밑에 숨기고, 출입문 밖에서 요금을 미리 받아 일부만 돈 통에 넣으라는 등 여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내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자

"너무 부담가질 것 없어. 다들 이렇게 해. 월급도 박하고 제 때 나오지도 않는데 좀 빼쓴다고 크게 문제 될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래도 좀……"

"아, 왜 그래? 젊은 사람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자네만 착하고 우린 뭐 다 나쁜 놈들인가? 자네가 그렇게 안하면 다들 들통 나서 문제만 더 커지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문제가 생길 것은 뻔했다. 똑같은 노선에서 다른 기사들이 운행할 때는 수입금이 적고, 내가 운행할 때만 수입금이 많다면 분명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었다.

나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 밤새 고민 끝에 다음날 견습을 시켜주시는 기사님께 물어보았다. 경험 많고 친절한 그 기사님은 무언가 해결책을 주실 것 같았다.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다들 그렇게 해. 절대 걸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 정 찜찜하면 적당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말이야 큰 돼지 저금통 하나를 사서 매일 그 돈을 모으다보면 그것도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 기사님은 안 그러겠지 하는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고, 모든 기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남들도 다 한다는데,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양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힘들게 얻은 첫 직장을 선임들 눈에 벗어나 금방 그만둘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직장이었다.

드디어 견습 과정을 마치고 차를 배정 받아 나 혼자 운행하게 되었다. 운행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수입금을 빼라고 알려준 기사님이 달려오셨다.

"확실히 잘 해! 내가 알려준 거 기억하지?"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고 안전 운행을 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더 큰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갔다.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손님의 차비를, 어떻게 내 주머니에 넣어야 할지 운전 내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 최소한 나의 양심에서 보면 그것은 엄연한 도둑질이고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선임들 눈총에 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돈을 빼돌려야 했다.

오후가 되어 한 종점에서 손님 몇 명이 타고 나는 뒤로 가서 차비를 걷다가 일부를 살짝 손바닥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다시 CCTV와 손님들 눈을 피해 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멎을 듯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첫 날은 도저히 더 이상 요금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요금 통을 반납하는데 담당자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다. 퇴근 후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몇 번 요금을 가로채고 며칠이 지나자 죄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나쁜 짓도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더니 꼭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선임 기사님이 알려준 대로 돼지 저금통을 하나 사서 퇴근 후 주머니에 숨겨 왔던 돈을 저금통에 모았다. 그런데 재미있기는커녕 그 저금통이 무거워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그날은 장날이어서 손님도 많이 타고

시간도 쫓기어서 정신없이 가고 있었다. 갑자기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가 휘청하며 내 차 앞쪽으로 들어왔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돌려 가까스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고 불과 몇 발자국 차이로 내 차와 충돌하지 않았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다치지 않았고 나도 계속 운행을 할 수 있었지만, 한동안 입에서 쓴맛이 나고 다리가 덜덜 떨려 왔다.

'만약 아까 그 할아버지를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터미널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착하게 살라는 하늘의 뜻이야.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하늘이 경고를 주는 거야. 이제 이런 옳지 못한 일은 그만해야지.'

나는 그 날 저녁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다음 날 그동안 저금통에 모아 두었던 돈을 가져와 버스 요금 통에 넣었다. 동전들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음악소리처럼 들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손님들 차비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회사 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회사에서 매일매일 CCTV 녹화 테이프를 철저히 돌려보고, 의심스러운 기사들을 불러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노선에서 수입금의 차이가 생겨 다른 기사들을 의심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되자 나를 보는 기사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왠지 내 뒤에서 욕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얼마 후에는 몇몇 기사님들이 발각되어 배차를 못 받거나 배정받은 차를 뺏기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CCTV의 설치를 늘려가고 최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열악한 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감안하여 CCTV 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기사님들은 깨닫게 되었고, 또 회사의

배려에 많은 기사님들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사실 그 기사님들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결코 마음이 편치는 않았으리라.

그 뒤 나는 걱정했던 것처럼 기사님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질책을 당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모범 운전자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몇 년을 더 근무한 뒤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퇴직할 때 회사의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현석씨가 버스 운전경력도 없고 나이가 어려 입사를 안 시키려 했지. 그런데 현석씨 인상을 보니 적어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사람 같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줄 것 같아서 내가 합격 시키자고 했지. 계속 있어주면 좋겠지만 더 좋은 일을 한다니까 축하하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만나세."

나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마음과 그래도 내가 이 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가끔 그 때 내가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곤 한다. 정말 앞이 캄캄해 오고 여러 모습들이 상상된다. 회사는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기사들 중에 몇은 전과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 역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옳고 청렴하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한 번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의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남들 다 하는데 좀 하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들은 자기의 비양심과 부정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요즘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습관이 있다. 비록 금방 돼지 저금통이

무거워지지는 않더라도 깨끗한 돈으로 돼지를 살찌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통통한 불량 돼지가 아니라 양심 돼지, 청렴 돼지이기 때문이리라.

장 려 상 일반부문 | 김세훈

인생을 바꾼 청렴



갑갑한 독서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은 나의 콧잔등까지 지나치지 않고 들르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독 뜨겁게만 느껴진다.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아주 잠깐 바람이라도 쐴까? 라는 유혹은 쉽사리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해 보자. 남들보다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올해는 꼭 붙을 거야. 들썩들썩 의자에서 한시라도 떨어지고파 하는 몸을 간신히 붙들어 매고 다시 간이 스탠드에 불을 켠다.

가정형편을 이유로 잠시 포기해야만 했던 나의 꿈은 오늘도 무더운 계절을 잊은 채로 힘겨운 시간을 지운 채로 책상 앞에 꿋꿋이 나를 서게 한다.

꿈이 없던 아이였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으며 대화 할 사람도 없는 외톨이였다. 매사 부정적이었고 시큰둥하였다.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가도 머리를 쓰다듬어 줄 엄마는 계시지 않았다.

어쩌다가 동네 친구들과 싸워도 꾸중해 줄 아버지도 없으셨으니 무엇이든 잘 해보고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내겐 부질없는 것이었다. 바깥일로 항상 바쁘셨던 부모님 밑에서 나는 천덕꾸러기로 빙빙 돌며 자라났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후로는 급속도로 삐뚤어져만 갔다. 알음알음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이 곳 저 곳을 배회하느라 학교에 안 가기도 일쑤였다.

1학년을 어렵게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만난 담임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내게 무척 호의적이셨다. 이미 문제아로 낙인찍힌 나와 언제나 대화하길 원하셨고, 꾸지람 보다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셨다.

그 따스한 눈길이 내게는 어색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보는 관심이 부담스러워 학교를 더욱 가지 않게 되었다. 며칠 동안이나 학교를 가지 않은 나를 대신 해 엄마가 학교에 다녀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억지로 학교로 향했다.

"훈아! 학교는 학생이 와야지! 부모님이 오시면 되겠니? 이제 학교 빠지지 말고 무슨 일 있거든 선생님께 꼭 말하려무나. 그리고 이건 어머님께 꼭 전해 드렸으면 좋겠다."

단단히 봉해진 편지 봉투는 무척이나 두텁고 빳빳하였다.

가정통신문일까? 내 흉을 적어 놓은 것일까?

편지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호기심이 물밀 듯 밀려왔다.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구석진 골목에 숨어 여러 겹 꼼꼼히 풀로 봉해진 봉투를 뜯어내고야 말았다.

'우수수.'

흡사 나뭇잎처럼 내 눈앞에 떨어지던 만 원권 지폐 여러 장! 주섬주섬 교복 바지 주머니에 돈을 찔러 넣고는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훈이 어머님!

어머님의 마음과 정성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의 도리를 알고 긍지를 갖는 것이 또 그것을 지켜 내는 것이 제게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말입니다.

훈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제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런 제자입니다.
관심과 대화로 제가 또 부모님이 훈이를 대한다면 곧 학생의 신분과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로 변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마음 잊지 않고 어머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훈이를 지도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이를 통해서만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읽었던 선생님의 편지를.
길지 않은 내용을 읽으며 흘렸던 눈물을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학부모도 학교도 선생님도 언론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촌지를 금지하고 있는 지금에야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만 엄마는 부끄럽게도 당신이 보낸 촌지가 나를 통해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도 간혹 학교를 찾으실 때 마다 촌지를 준비하시곤 하셨었다.

직장일로 바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에게 관심을 둘 수 없는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선생님에게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무렵부터 엄마가 촌지를 준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쩜 엄마가 촌지를 드려 선생님이 잘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
학교를 빼 먹고 놀던 날에도 엄마가 촌지를 드리면 이런 잘못쯤은 봐주시겠지 하는 어이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몰래 뜯어 버린 편지봉투를 버리고, 교복 주머니에 넣어 둔 돈과 선생님의 편지를 그대로 잘 접어 문방구에서 산 새 봉투 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밤늦게야 집에 오신 엄마에게 전해 드린 뒤, 나는 내 일기장 속에 난생 처음 꿈이라는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나의 꿈은 언제나 정정당당하고 국민을 위해 부끄럼 없이 일하는 경찰이라고…….

잠시 뒤. 갑자기 귓불까지 벌겋게 달아 오른 모습으로 방에서 나오신 엄마는

"훈아! 너의 담임선생님은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이란다. 엄마가 참 부끄럽구나. 너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내 손을 붙잡고 다시 학교를 찾으셨다.

선생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는 들을 수 없었지만 짐작 할 수는 있었다.

당연한 일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어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도 위대한 일일 수 있음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들에게 배웠던 수학 공식이며 영어 문법보다 교육자의 도리와 긍지를 올 곧이 지켜 가셨던 선생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큰 교훈과 드넓은 교육이 되어 내 가슴에 내 머릿속에 전해졌다.

그렇게 나는 첫 꿈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안게 되었다.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청렴과 정직은 나를 바로 서게 하였고, 나는 장래 희망 란에 경찰이란 단어를 또박또박 적어내는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적지 않은 수회의 고배를 마신 후, 포기하고 싶었던 날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의 편지를 떠 올려 본다.

청렴과 정직이 가장 강한 교편이라 믿으셨던 선생님은 그 교편으로 문제아에게도

모범생에게도 부자인 아이에게도 가난한 아이에게도 고른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셨다.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계셨기에 우리들은 모두 최고의 학생이 될 수 있었다.
당신의 밑에서 우리는 교과목 보다 더 중요한 本을 배웠으며 진리를 깨우쳤고, 꿈을 가질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청렴은 누군가 가르치고 알려 준다 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공직자가 국민에게 몸에 베인 청렴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전해지는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같은 존재인 것이다.

청렴은 本이다.
당연하기에 지켜져야 하지만 누군가에겐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른다.
청렴은 진리이다.
청렴한 세상만이 푸르게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욕심은 때론 진리마저 잊게 한다.
청렴은 꿈이다.
공직자나 교육자만이 아닌 누구나가 청렴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 꿀 수 있으리라!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능력 있는 선생님보다 청렴과 정직이란 교편을 잡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와 빛나는 꿈을 지도 해 주셨던 진정 아름다운 교육자였던 선생님을 부끄럼 없이 다시 뵈러 갈 그 날을 꿈꾼다.
'청렴'이란 두 글자를 나의 가슴속에 빼곡히 수놓아 주셨던 선생님께 푸른 제복의 경찰관이 되어 찾아 갈 그 날을 기다리며 다시 책장을 열어본다. 청렴세상

장 려 상 일반부문 | 김지윤

향기 나는 언론인



나는 어릴 적 엘리트였던 친오빠와 비교되면서 고질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자라서인지 '정의'와 '자유'를 유독 좋아하는 아이였다. 사업가 아버지와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를 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나 더욱 자유를 갈망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감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오빠보다 인정받고, 살아있음을 제대로 느끼는 순간을 다름 아닌 '글'을 쓸 때였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글짓기상은 웬만하면 '최우수'였고, 논술만으로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방송작가가 되기로 했고, 보수적인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학기 대학등록금을 KBS 아카데미 방송작가 학원에 등록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 대한 도전으로 하루하루 설레었고, 현실에 대한 부푼 기대로 가득 차올랐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 보니, 지옥이 따로 없었다. 한 시사 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로 들어간 나는 밤낮없이 정말 하루를 48시간처럼 일했다. 휴무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것도 랜덤이었으며, 일하는 날은 출퇴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정도로 고된 밤샘작업의 연속이었다.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던 나는 손가락 관절염증과 만성 각막염에 시달렸고 밤낮 구분 없는 과로로 생체리듬의 파괴되어 백혈구감소증까지

걸려 걸핏하면 쓰러졌다. 하혈과 코피를 반복하며, 링거까지 꽂아가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한 이유는 직업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부모님께 반드시 성공하는 모습으로 미안함을 갚고자 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일에 대한 강도가 센 것이야 이미 아카데미에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다. 일이야 그렇다 쳐도 내가 정말 버틸 수 없었던 건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방송도 예술이기에 개성 강한 사람들이 많아 군기까지 셌다. 까칠하면서 실력 없는 선배를 만나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혼이 나야 했고, 주변 동료들과도 성격이 잘 맞지 않아 마음 둘 곳 하나 없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 하면서 받은 월급은 80만 원. 저축은커녕 기본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모든 방송가가 다 그렇지는 않다. 원래 시사 쪽이 일이 고되기도 하고, 내 근무환경과 인복이 안 좋았던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져 월급이 밀리게 되었다. 이쪽 계통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며 선배들은 한두 달 월급이 밀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란 듯 안심시켰다. 하지만 하루하루 수중의 한 푼이 급한 막내들은 사정이 달랐다. 결국,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어 방송 관련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글을 써주는 일과 관련한 아르바이트의 수입은 예상외로 짭짤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들어오는 일도 다양해졌고, 입소문을 타고 나의 글 솜씨는 제법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선거라든지 여러 기관의 활동과 관련해 원하는 글이나 문구를 센스 있게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거기서 운 좋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의 재주를 알아보신 그분이 정치 글과 관련한 큰일을 맡겨주셨다. 정치와 시사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 일을 훌륭히 해내며 성취감을 느꼈다.

부족한 생활비도 채우고, 나의 글 실력도 쌓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였다. 활동 영역은 넓어져 여러 방송기사를 대신 써 투고하는 일, 아는 지인들의 취업 이력서,

심지어 대입 자기소개서까지 의뢰가 들어왔다. 기사 글을 투고하는 일은 방송 프로그램 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쉽사리 거절하기 힘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합리화시켜, 불쌍한 박봉인 나에게 이 정도의 용돈벌이를 허용되지 않겠느냐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시간이 흘러 대필해주는 일에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글 실력이 있나 확인받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점점 생각지도 못한 후한 대접과 쏠쏠한 용돈벌이, 실력을 높이 인정해주는 칭찬들과 같은 달콤한 유혹들로 나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급기야는 지인들의 지인들 이력서를 써주고 있었고, 나아가 짤막한 전문 기고문, 연설문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으며, 본업보다 이 일 쪽에 적성이 맞는 것 같다며 정식적인 대필제의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대필회사의 연봉제의가 들어오면서 그제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녹록치 않았던 회사의 근무환경과 빨리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조바심,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는 대필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양심이 더해져 자꾸만 쉬운 길로 발걸음이 향했다. 고된 일로 힘들었던 나의 육체는 건강한 정신마저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또한, 너무나도 순식간에 빨리 변해가는 내 자신에 더욱 놀랐다. 불법의 유혹에 탐닉해가는 속력은 너무 빠르고 짜릿해 나를 돌아볼 시간 따위는 절대 주지 않았다. 게다가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시작한 일은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내 모습이었다. 한때 '정의'와 '자유'를 좋아하며 진실한 언론인을 꿈꾸던 내가 맞는지 아찔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진정한 언론인으로서 자질을 의심해가며 하루하루 양심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러던 중 프로그램 팀 자체가 재편성 되었고, 멋진 선배와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방송가에서 계속 오래 일하고 싶을 정도로 배울 점 많은 존경할만한 한 선배가 나타났다. 평소 후배나 선배를 챙길 때는 한없이 사려 깊고, 웃음 많고 따뜻한 분이시지만, 일 할 때만큼은 확실하고 무서울 정도의 집중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이었다. 반전 매력과 동시에 철저한 자기관리와 타고난 품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도 매력적인 분은 남에게도 그럴 것이, 늘 선배 주변에는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래서 선배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회는 오는 법. 운이 좋게도, 금방 선배와 팀을 이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 숙직실에서 자는 내가 안타까워 자신의 자취방을 기꺼이 내주셨고, 뜻하지 않은 2주간의 선배와 동거를 하게 됐다. 여태껏 다른 선배들은 홀로 원고 쓰는 일을 보조적으로 도와준다는 느낌이었다면, 이 선배는 막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자막 타이핑을 직접 시키는 등, 일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려는 느낌이었다. 처음으로 밤샘작업을 하고도 힘들지 않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어김없이 밤샘 작업이 한창일 때 하던 때였다. 선배가 머리 좀 식히자면 옥상에서 캔 커피 하나를 건넸다. 새벽이어서 그랬는지, 감성이 충만해진 선배는 처음으로 일이 아닌 소싯적 기자였던 사담을 풀어 놓기 시작했다.

"방송작가 하다가 잠깐 신문기자 제의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빠진 적이 있었어. 생각보다 기자생활은 수직적이고, 보수적이더라고. 나의 의견과 생각은커녕, 이미 지시가 내려진 글을 수정해가는 일이 태반이었어. 그렇게 기자생활에 회의감이 들던 중 상사한테 기업을 컨설팅을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지. 하지만 나는 어려서 몰랐지. 그 컨설팅이 리베이트일 줄은."

"…."

"결국, 일 못해 먹겠다고 사직서 던지고 당당히 내 발로 나오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내

인생에서 제일 통쾌한 순간이기도 했고. 그냥 스스로가 멋져 보였어. 내가 봤을 땐 너 방송작가로서 충분히 재능 있어. 너도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전문인으로서 숱한 제의들과 별의별 일을 겪게 될 거야. 이렇듯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은 정말 찰나야.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이러한 제안은 너도 모르게 안에 있던 품성과 인성으로 결정 나버리기 십상이지. 그러니 진짜 언론인다운 언론이 되고 싶으면 진실한 마음과 올곧은 양심부터 기를 줄 알아야 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선배."

남다른 선배라 생각했지만, 나의 고민까지 해결해줄 줄이야. 그 이후는 과감히 일을 그만두었다.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약한 체력을 단련시키고, 건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언론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유학을 결정했다.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시사 프로그램 작가로 있으면서, 숱하고 다양한 부정에 빠진 사연들을 접했다. 몇 달 동안 대기업 관련 취재를 힘들게 완성했지만, 엠바고가 터지면서 엎어지기도 했고, 비리 많은 기업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추석에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 인터뷰를 했다. 또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밑바닥의 어두운 세계를 보았고, 부정부패와 관련한 일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깝게 작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그러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실현'에 대한 남다른 가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사람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 나는 이것을 언론인의 진정한'청렴'이라 본다.

예전에 성당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 말씀이 떠오른다. '썩은 음식은 먹지 못하지만, 삭은 음식은 깊은 맛을 내죠. 비슷한 것 같아도 발효와 부패는 천지 차이예요. 태만으로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발효인생을 사십시오.' 언론인으로서 나의 인생은 아직 발효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의 양심은 살아있다. 고로, 난 꼭 다시 향기

나는 언론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하루를 일생처럼 산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흘러 순간이 평생이 되지 않도록. 향기롭게 발효하고 싶다. 청렴세상

입 선 상

공직 부문

92 부패와 이리의 골에서 | 김상범

97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 김성현

103 청렴과 부패는 종이 한 장 사이 | 오세연

108 목격자를 찾습니다. | 윤시수

114 무지개빛이 회색빛이 되더라도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 이미선

일반 부문

120 종이 자전거 | 강기동

126 한겨울이의 눈물 | 김은영

131 초코파이 | 김태현

138 청렴사진관 | 정혜연

141 손지 | 조정임



입 선 상 공직부문 | 김상범

부패와 비리의 끝에서



신입직원, 기부금 횡령 사건의 한가운데 서다

지역신문사 취재기자 생활을 접고, 일 년 가까이 백수생활을 전전했다. 첫 아이가 태어난 후였으므로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우연치 않게 한 사립대학 홍보실에 직원 채용공고가 났다. 용기를 내어 지원했다. 미취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입사지원서를 낼 때는 용기가 필요하리라던 한 선배 백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대학 직원으로 맡은 업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대학의 주요한 이슈를 발굴해 보도자료로 만드는 등 대학 홍보 업무가 내게 부여된 업무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전기금을 접수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곡절은 있었지만 1년간의 수습기간은 순탄했다.

사건은 정규직 직원으로 발령장을 받고나서 생겼다. 그 전까지는 수습기간이었으므로, 그간은 항상 보조 역할에 국한되었다. 군대로 비유하자면 부사수였던 것이고, 정규직 직원으로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사수가 된 것이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했다.

사립대학에서 취급하는 발전기금은 흔히 기부금으로 불리는 돈이다. 장학금으로 써 달라거나 대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의 순수한 기부금부터, 대학과 거래하던

업체로부터의 들어오던 일명 조건부 '꺾기'성 기부금, 대학의 운영자의 눈에 들기 위한 '아부성' 기부금 등 종류도 다양하다. 많을 때는 연간 7억원 가까이 접수되곤 했다. 물론 서울 지역의 유수 대학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다.

타 부서로 전출 발령을 받은 선임자는 후임자인 내게 발전기금이 접수되는 은행계좌를 3개월여 간 인계하지 않았다. 선임자는 그 업무를 8년 가까이 해 왔던 터라, 후임자였던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었다. 일반 공직업무와 달리 사립대학의 행정업무의 인수인계 절차가 느슨한 탓도 있었다.

정직할 것인가, 묵인할 것인가

선임자로부터 기부금 접수 계좌를 인계받은 뒤, 나는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5년 여간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의 내역, 기부금 수입내역이 심각하게 불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었는데, 해당 기부금은 대학의 수입으로 입금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이다. 횡령이었다. 얼추 1억 원이 넘었다. 그것도 기부금이 말이다.

존경하고 믿었던 선임자의 불법적 행위를 알게 된 것이 개인적인 고민이었다면, 선임자의 불법적 행위들을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의 상급자들의 안일한 인식은 대학 안의 상습적이고 제도적인 고민거리였다. 게다가 나는 어렵게 정규직 발령을 받은, 대학행정의 경험이 일천한 신출내기였고, 사립대학의 행정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공공연히 쉬쉬하는 분위기가 관행처럼 만연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행에 신출내기가 제동을 거는 것은, 앞으로 대학 직원으로서의 순탄한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오래되고 강한 관행의 음습한 그늘 속에서 직장생활이 종료될 수도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임자의 징계와 강제 퇴사도 의미했다. 전 직장의

폐업 사태를 겪고, 이미 배고프고 눈치 보이는 백수생활을 한 번 거쳤던 나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양심과 두려움의 사이에서

세 살 박이 딸아이를 끌어안고 잠든 집사람 옆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자리 잃은 가장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두려움의 끝에는, 작고 못난 양심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양심은 정직함을 무기로 나를 위협했다.

타인의, 대학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한 채, 부끄럽지만 안일한 직장인의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지라도 떳떳한 양심적 삶을 위해, 어쩌면 또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무모한 선택을 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꽤 비참했다.

집사람이 용기를 주고 싶어 했다. 입에 풀칠할 걱정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고 했다. 선임자의 잘못을 묵인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개과천선하리란 보장을 어찌 하느냐, 반문했다.

직장의 다른 선배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좋을 게 없다는 투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다른 선배는 잘못을 저지른 선임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너그럽게 봐 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횡령 사례를 덮어버릴 수 있는, 신출귀몰한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선임자는 자신이 횡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00라는 분이 있었다. 대학의 사진촬영, 영상기록, 광고물 제작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놀기 좋아하고 게으름 피기 일쑤인, 나이 지긋한 분이었다. 대학에서 30년 가까이 직원으로 생활해 온, 대학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걱정과 고민이 칼날이 되어 몸까지

피폐해 질 즈음, 이 분이 짧게 충고했다.

양심이 울리는 방향, 정직하고 행복한 삶

"너의 마음이 가는 방향, 그것이 네가 갈 길이다."

용기를 내라는 말이었다. 고민과 걱정에 휘둘리지 말고, 양심에 맡기라는 말이었다.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진실을 외면한다면, 그것이 수십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태도가 용기있는 삶의 자세라고 했다. 정직하고 행복한 삶이란, 그런 고뇌와 근심 속에서 용기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다.

결단을 내렸다. 사건을 조사하라는 업무지시가 내려졌다. 업무담당자가 문제제기를 한 이상, 사건을 더 이상 무마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급자들도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전임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하이에나처럼 자료를 뒤지고, 제보를 했다.

별도의 감사팀이 투입됐으며, 5년여 간 총 1억 8천여만 원이 횡령된 것으로 판단했다. 선임자는 집을 팔고, 사학연금을 해약하여 횡령액을 변제하고 퇴사했다.

조사기간 동안 나는 한 달여에 걸쳐 고생을 했다. 단지 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숱한 진술서와 조사서에 서명을 했다. 보통 사립대학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문제 있음을 지적한 사람 모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는 없었다.

그러므로 포상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다만 다른 직원들로부터, 선임자를 퇴사케 했다는 질시와 은밀한 야유만이 등 뒤로 쏟아졌다. 그리고 사건 무마를 종용했던 상급자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사건은 그렇게 덮이는 듯했다.

제도화되지 못한 청렴함의 한계

그로부터 몇 년 후, 10억 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결국 1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다.

내 선임자에 의한 횡령 사건이 그저 내부적으로 덮이는 데 그치지 않았더라면, 내부적인 반성과 재발방지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다시 두렵게 등 뒤를 엄습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대학은, 사건을 내부적으로 덮기 위한 미봉책만을 남발했다. 사립대학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한 채 말이다.

청렴함이란 정직함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내지 않는 자세이며, 동시에 내가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으로 달성해야 할 최선의 덕목, 지향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청렴과 정직은 사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 위한 덕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에게 강요되는 덕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공동체 속 개개인으로 하여금, 이 덕목을 실현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내가 겪었던 그 사례에서 대학이 철저히 반성하고, 청렴하고 정직할수록 개개인이 발전하고 공동체 전체가 부흥될 수 있음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유사 사례의 방지책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10억 원의 횡령 - 횡령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상황은 다시 연출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렴함과 정직함을 권장하고 의무화하는, 제도화된 조치가 없는 공동체에서 횡령, 부패는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렴세상

입 선 상 공직부문 | 김성현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26살. 나는 또래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제대를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 학부 전공인 법학을 더 공부하기로 결심하여 유학길에 올랐다.

외국에서의 유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음에도 현실은 훨씬 더 참담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황량한 이국의 도시환경, 하루에 두 끼 밖에 먹을 수 없는 재정 현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인종 차별 등 출국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 앞에서 나는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유학생활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인 '영어'로부터 오는 좌절감은 쉽게 떨쳐내기가 어려웠다.

내 자만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군 생활 도중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학부가 아닌 대학원 수업에서 통용되는 영어는 차원이 달랐다.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다. 같은 반 원우들이 웃을 때 나는 어색한 미소만 머금은 채 눈치를 봤고, 열띤 토론이 진행될 때는 내 차례가 올까 마음을 졸이는 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각종 과제와 시험에서 내 부족한 영어실력은 그 민낯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결과물을 통보 받을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지?" 라는 상실감에 빠지며 '포기'라는 말을 떠올리곤 했다. 그러나 여태껏 나를 믿고 기도하신 홀아버지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던가를 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졌고, 영어를 최대한 빠르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교과서와 씨름하고 있던 내게 같은 학교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이던 후배 K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형, 공부 잘 돼가세요?"
"항상 그렇지 뭐. 다른 건 몰라도 영어랑 과제 때문에 너무 힘드네."
"에이, 요즘 누가 그렇게 과제준비를 그렇게 해요?"
"뭐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원하는 주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대충 짜깁기 하세요."
"그거 표절 아냐? 신입생 O.T. 때 표절하면 바로 과락 준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대부분 학생들 다 그렇게 해요. 겁먹지 말고 조금만 해보세요."
"싫어. 정당하지 않은 방법 같아."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 모르세요? 성적만 잘 나오면 끝이에요. 형이 표절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전체를 베껴서 내는 건 아니니깐 너무 걱정 마세요."

평소 같았으면 웃어넘기고 말았을 얘기였다. 그러나 영어 때문에 연속적인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끼던 내게 그 제안은 내 앞에 드리운 장막을 걷어내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특히 최대한 빨리 학위를 마쳐야만 했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달콤한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 힘들었다. 과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다른

과제물들이 허름한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나를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되는 주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좋은 문장들을 그대로 짜깁기했고 완성된 결과물을 학과실에 제출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렀고 기말 시험이 다가왔다.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 매달려있던 나는 지도교수님이었던 W로부터 잠깐 연구실에서 만나자는 이메일을 받았다. 의아한 마음이 있었지만 별 거 아니겠지 생각했다.

"교수님 부르셨어요?"
"미스터 킴. 요즘 공부는 어때요? 외국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회사모델과 같은 푸근한 인상을 가진 지도교수 W는 교내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그 분은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교육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는 분이었다.

"쉽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영어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미스터 킴. 혹시 신입생 O.T. 때 학업윤리(Academic Integrity)란 말을 들어봤나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고, 몇 주 전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며 짜깁기한 과제물이 생각났다. 부분표절인 짜깁기가 대부분 학생이 하고 있는'관행'이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던 후배 K에 대한 순간적인 원망,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행동에 대한 후회, 이제부터 맞닥뜨려야 하는 참담한 결과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조각들처럼 마구 뒤섞이고 있었다.

"네. 들어봤습니다."
"미스터 킴은 학업윤리 또는 청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마치자 몇 초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지도교수 W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화를 이어나갔다.

"현재 우리 대학원 내 대한민국 학생은 미스터 킴 혼자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미스터 킴이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안 그래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해하던 내게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말은 기존의 죄책감을 가중시키며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 교육환경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학생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바로 '학업윤리', 바로 '청렴'입니다. 미스터 킴은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학문 등을 습득하고 그에 따른 학위를 취득 할 수가 있지만, 정당한 노력과 수단을 통해 얻지 않은 학위, 다시 말해 '청렴성'이 배제된 학위는 반쪽짜리 학위에 불과합니다."

나는 머리를 숙였고 지도교수 W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꽤나 거창하게 들리지만 청렴(Integrity)이라는 말의 요지는 바로,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에도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는 뜻입니다.(Integrity means in any circumstances having the courage to do the right thing whether or not anyone is watching). 물론 미스터 킴이 외국학생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학위 과정 중 가져야 할 태도 즉,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인생이라는 큰 학교'가 미스터 킴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던 행동, 학생으로서 아니 그 전에 민주시민으로서 먼저 지녀야 할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해서 머리를 떨군 채 W교수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치듯 연구실을 빠져나오려는 나를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 세우며, 지도교수W는 이후 내 인생의 방향등이 될 조언을 더했다.

"미스터 킴. 꼭 기억하세요. 성공은 어느 때나 찾아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 도 있지만, 청렴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Success will come and go, but Integrity is Forever!)

2012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던 어느 추운 겨울 날, 외국의 한 청년에게 건넨 노교수의 진심어린 충고는 201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

인생이라는 긴 여로 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느덧 2년차 직장인이 된 지금, 업무 도중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가치 판단이 혼동되어 힘들어하는 후배들과 술잔을 기울일 때나,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는 나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때 나는 항상 그 노교수의 조언을 떠올리곤 한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어느 때나 찾아 올 수도 있고 사라질 수 도 있지만, 청렴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Success will come and go, but Integrity is forever!)

청렴세상

입 선 상 공직부문 | 오세연

청렴과 부패는 종이 한 장 사이



2012년 떠났던 천안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발령 받은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다닐 만큼 가까운 작은 학교였다. 2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는데 5월이 되어 봄 소풍을 가게 되었다.

일 많은 후배들을 돕는다고 학년 총무를 맡았던 나는 후배인 학년부장에게 학년 선생님들 먹을 점심 김밥을 사야겠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같이 가는 학년부장에게 물어 보더니 학부모들이 준비해 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현장학습으로 출장 달면 출장비로 점심 값까지 나오는데 왜 학부모들에게 신세를 지느냐? 그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또 다른 학년 부장 말이 현장학습 가는 업체에서 주는 점심을 먹겠다고 했단다.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그게 바로 부정부패 아닌가? 업체에다 아이들 보내 돈 벌게 해 주고 점심 얻어먹는다는 생각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더니 가운데서 입장이 곤란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내 개인 돈으로 커피랑 음료수를 사서 같이 가는 선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현장학습을 갔는데 학년부장이 배낭을 엄청 큰 것을 메고 있기에 이게 웬 것이냐고 했더니 화가 나서 말하길 '선생님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셔서 친정 엄마 오라고 해서 도시락 싸오느라 가방이 커졌잖아요.'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다. 결국 모두

각자가 싸 온 도시락을 먹게 되었지만 부임해 오자마자 한바탕 난리를 부린 나는 이 학교에서 이때부터 미운 오리 할머니가 되었다.

더위가 한창 농익기 시작하던 2013년 6월의 어느 날 운동장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과 놀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학년부장이 나를 급히 불렀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하였더니 교육 복지실 개관식을 하니 어서 오라는 것이었다. 아이들과 수업하다말고 갈 수 없어 수업을 마친 후에 현관으로 갔다.

현관에 돼지머리까지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지 고삿상이 차려져 있고 전 직원이 모여 있었다. 6학년 부장과 교사들이 돼지 입에 돈 봉투를 물리고 절을 하고 있었다. 이미 내가 속한 4학년은 끝난 상태라서 어떻게 하는지 뒤에 서서 살펴보고 있었다. 학년별로 다 돌아가고 나더니 행정실,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돌아가며 고삿상에 절을 하고 돈 봉투를 돼지 입에 끼워 넣는 것이었다. 고사가 끝나자 A부장이 친목회장인 B선생님을 불러 돼지 입에서 꺼낸 돈 봉투를 모아주면서 친목회비로 쓰라고 주는 것이었다. 황당한 모습이었다.

당시 도덕과 체육교담이었던 나는 체육교담실로 돌아와 B친목회장에게 아까 A부장이 준 돈은 학부모들도 학교 발전을 위해 낸 것이니 친목회에서 받아 사용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메신저로 알려주고 퇴근을 하였다.

마침 전 직원 회의가 있는 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조퇴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 B친목회장이 안건으로 올려서 친목회비로 사용할 지 아니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어 사용할지 여부를 가지고 회의를 한 모양이었다. 지인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45만원 밖에 되지 않는 적은 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넣으면 업무만 늘어나서 담당자가 싫어하니 난감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표결에 부쳤는데 많은 표 차이로 친목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렴과 부패는 종이 한 장 차이! 이런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음에도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가서 다시 부장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왜 그 돈을 우리가 친목회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이냐는 주장부터 왜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가지 이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냐는 둥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식의 온갖 원망이 내게 쏟아졌다. 학교장 맘대로 교육복지 예산으로 돼지머리 등을 준비하도록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고사에 동참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돼지 입에 돈 봉투 물린 학부모들 앞에서 친목회에서 사용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친목회에서 사용하자는 쪽에 손드는 많은 선생들의 모습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다. 부정한 돈으로 운영하는 친목회를 탈퇴하겠으니 친목회장인 B 선생님에게 '다음 달부터 내 봉급에서 친목회비 떼지 말라'고 선언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일에 동조할 수 없어요.'하고 부장회의 자리를 나와 버렸다.

지난 2009년부터 학교현장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학교장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와 신고를 해 왔던 나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어린 후배 교사들마저 부패의 물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도 관계 기관에 신고까지 할 수는 없어 내내 고민하고 있었다.

다행히 내 말에서 무게가 느껴졌는지 다시 친목회장인 B교사가 나를 찾아와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 말이 맞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기에 아이들을 위해 책을 구입해 주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아~ 청렴의 길은 참으로 멀다. 이후 또 다른 일이 불거져 나왔다. 1학기를 마칠 무렵 학교장은 전 직원을 대동하고 교육과정연찬회를 대천으로 가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예산이 없어서 친목회비에서 식사비를 내고 교통비는 학교운영위원장이 낸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연찬회라면 친목행사가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이니 마땅히 학교예산에서 지출되어져야 할 일이었다. 또한 친목회 행사라면 모든 경비는 친목회비에서 지출되어져야 할 일이었다. 교육과정의 일환이든 친목회 행사든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버스비를 받으면 안 되는 일었음에도 학교장은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나는 당연히 나는 그런 부패한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다.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몇 번을 체육교담을 찾아와서 한번만 눈감아주고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친목회에서 놀러간다고 마냥 설레어 있었다. 떠나는 날 교무부장과 교감에게

'잘 다녀와라. 그러나 분명히 문제는 제기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였다. 그냥 놓아두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다. 얼마 전에도 학교운영위원장이 내게 개인적으로 돈이 없으면 운영위원장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 놓은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학교 내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교육과정 연찬회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알면 나를 원망할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나 업무포털 메일을 통해 충남도교육청 감사실 전 직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부패인가 질문하는 형식의 메일을 보냈다.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학교로 연락이 온 모양이었다. 교감선생님이 내게 다시 찾아와 감사실에서 연락 온 일이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내게 말하기에 그건 내가 감사실에 메일을 보내서 온 연락이라고 말해 주었다. 자칫하면 죄 없는 후배들이 다칠 상황이라기에 다시 감사실에 메일을 보냈다. 교사들이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고…….

결국 학교운영위원장이 지불하였던 버스비는 친목회비에서 추후 지불하도록 조치되었고 이 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직원들은 부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해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청렴교육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하는 학교 현장! 늘 귀찮다는 듯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청렴교육! 누군가의 문제제기가 있어도 별 것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것이 공직자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줄 아는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한다. 청렴韓세상

입 선 상 공직부문 | 윤시수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해주세요. 제보하신 분께는 후사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혹은 길거리에 붙어 있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를 볼 때면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아뜩해진다. 벌써 9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잊을 법도 하지만, 여전히 바람 한 점이 지나간 것처럼 휑하니 뚫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참을 바라보곤 한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 특별히 어려운 경험이나 일들은 없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감사했다. 남들보다 잘 살지는 않아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했던 하루하루는 특별하게 욕심내야 할 것도 없는 순탄하고 평안한 일상들이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45년을 살아 온 내 평생의 모든 마음고생을 한꺼번에 치르게 한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날도 출근하여 오전의 바쁜 업무를 마치고 막 점심식사를 하려던 찰나였다. 핸드폰의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아내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직감적으로 많이 다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들후들 떨려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내는 얼굴 여기저기가 찢어지고 많이 부어 있었다. 병원에서는 응급검사와 응급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저 멍한 상태로 의사들의 뒤를 따라 뛰어다녔다. 아내는 목 경추의 3번 뼈와 4번 뼈에 금이 갔고 얼굴과 가슴의 타박상 외에는 다행하게도 목숨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정면충돌 사고치고는 그나마 경미한 부상이라는 의사의 말에 나는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건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아내는 직진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상대방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새로 산지 1년 밖에 안 되는 튼튼하다고 소문난 아내의 SUV차량은 폐차해야 할 만큼 많이 부서졌고, 다행하게도 운전석의 에어백이 터지며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상대편의 운전자는 에어백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침울했다. 아내도 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었다.

응급치료가 끝나고 나서 아는 의사선생님이 계신 정형외과로 아내를 옮기고 아이들을 챙겨야 하기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며 잠깐 틀어 놓은 아침뉴스를 보며 우리 가족은 깜짝 놀랐다. 전 날의 교통사고가 보도되는데 아내가 가해자로 되어있었다. 불법으로 좌회전 한 것은 상대편이 아니라 아내였다고 보도되는 것이었다. 서둘러 아이들을 보내 놓고 병원으로 갔다. 이미 아침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는 아내는 노발대발이었다. 상대방은 목숨을 잃었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죄인처럼 숨죽이고 하룻밤을 보냈을 아내는 하얗게 말라버리고 타버린 입술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길은 7년 동안이나 다니던 길이어서 좌회전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인과 만나기로 하고 가는 길이였기에 좌회전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난 차량이 멈춰 선 방향만 보더라도 무슨 사고인지 짐작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진 신호 중에 직진으로 간 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냐는 것이었다.

아내는 지인들을 통하여 방송국에 항의도 해보고, 조사 나온 경찰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들도 "아빠! 엄마가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그럼 우리 엄마 감옥 가는 거야? 나 친구들에게 그게 우리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어."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에 항의하고,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아도 조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는 싸늘한 대답뿐이었다. 막막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내의 말을 100% 믿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살아오면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 온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이럴 때는 선경험이라도 미리 있었으면 어떻게 할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손을 썼네. 이런 때는 누가 먼저 경찰에 손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기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 사람이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구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돈 천 만원 준비해서 담당 경찰을 찾아가라고."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랐다. 언젠가 뉴스에서 보았던 뇌물을 받고 사건을 처리해 주었던 부패경찰관의 이야기도 떠올랐다. 나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적은 보수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며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 괜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청렴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이래서 공무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야.' 라며 경멸하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밖에 없었다. 적금을 깨고 여기저기 돈을 긁어모아 천만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아니요, 그 방법은 아니에요. 나는 내 양심을 믿을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찰을 믿어볼래요."

그로부터 며칠 후 사고 장소에는 플랜카드가 걸렸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경찰서에서 걸어놓은 플랜카드였다. 그렇지! 우리도 플랜카드를 걸어놓자. 여전히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나는 경찰서에서 붙여 놓은 바로 옆에 플랜카드를 만들어 걸어놓았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주세요. 제보하신 분께는 꼭 후사하겠습니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일이 그들과 통화하면서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사고를 목격하지도 못했으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게는 십 만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돈을 요구하며 우리 쪽으로 유리한 증언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패가 관행이 되고, 청렴이 오염되는 것이다. 그들과 통화하며 씁쓸한 마음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양심이 왜 이렇게 썩었을까? 상대방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돈에 양심을 팔아넘기는 것인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그 유혹들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아내의 결백을 믿었고, 경찰을 믿었고,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고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아내는 사고 후 40일 만에 퇴원하고 그 즈음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건은 결말이 났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40여일이었다. 나는 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 졸이며 황폐해졌던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이, 경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 날이기도 했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2명의 제보자가 있었다고 했다. 한 명은 아내의 뒤를 따라오던 차였고, 또 한명은 상대방 차를 뒤따르던 운전자였다는 것이다. 경찰의 플랜카드와, 후사를 하겠다는 우리의 플랜카드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했다.

그 사건은 나의 공직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유혹은 돈과 명예가 아니겠는가? 살면서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만약 그 때 내가 불의와 타협했더라면, 뇌물을 주고서 결백을 증명했다면 지금처럼 떳떳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부서의 수장이 되어서는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청렴의 기본임을 강력히 피력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그 때의 경험과 신뢰가 근거가 되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이런 플랜카드를 보면 9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 구석으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다. 먹먹해지는 마음이 들면서 누군가 억울함으로 한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이야기해 주고 싶다. 아직도 이 사회

구석구석에는 청렴하고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번 믿어 보라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있다고 격려해주고 싶다. 그 일의 목격자가 바로 나라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편법과 불의에 맞서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아내는 것을 목격하는 목격자들이 더 많아지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등을 토닥이며 응원해주고 싶다.

청렴韓세상

입 선 상 공직부문 | 이미선

무지개빛이 회색빛이 되더라도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헬렌 켈러가 남긴 명언 중 이런 말이 있다.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지난하게 연구와 분투하며 박사과정을 보내면서, A사립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4년 동안 수업일수는 적었지만, 내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강의했다는 것은 강의 평가가 전 교원 중 1위를 몇 차례 했다는 것으로 심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을 나와 공유함으로써 그들과 소통하는 스승이면서 인생 선배가 되어가고 있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수업일수에 비해 교수로써의 지위를 누려가면서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직장이었다. 그 안에는 나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행복이 있었던 곳이다.

겨울방학 중, 1박 2일 연구방법론 특강이 있어 타 지역에서 내려오는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학과장에게 받는 첫 전화였다. 초빙교수라지만, 일 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는 이미 인사자료를 발송한지 한참 지난 후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최고 강의평가를 받은 나에게 교수대상 교수법 특강이라도 맡기는 줄 알고, 그 짧은 시간에 긍정적인 긴장이 감돌았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도 잠시간, 사람의 기분이 저 땅바닥 아래, 아니 저 깊숙한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 때 알아버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나지막한 목소리.

"초빙교수 신분은 계약만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지도 못한 학과장의 그 말, 말, 말 때문이었다. 내 강의가 초빙교수 신분이 아니어도 시간강사 신분으로 강의하면 될 것 같다며 학교 재정 걱정을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업시수를 늘려달라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뭔가 꽝 얻어맞는 기분이었다. 분명 당당히 공채를 통해 입사했고, 비 정년 트랙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 강의는 수강신청이 1~2분 안에 끝날 정도였고, 청강생도 꾸준했으며, 강의 평가는 만점에 가까웠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학생들보다 먼저 입실하고, 늦게 퇴실하면서 늘 상담하고, 준비하고, 강의 시간 외 시간을 활용하며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내 진심과 노력이 통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가르치는 게 좋았다.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보람됨을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무지개빛이 색이 바랜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해고 문서와 함께 그렇게 전화 통보를 받은 게 작년 겨울의 이야기다. 박사학위까지 모든 조건이 맞춰지는 그 때에 해고통보를 받은 나는 너무 씁쓸했다. 그리고 많이 슬펐다. 또 아팠다. 이제 누군가가 내 직업을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해야하나 난감했다. 내 아이의 부모 직업란에 내 칸은

이제 주부로 채워야 하는 것인가? 만감이 교차하고, 우울증이 올 것만 같았다. 남편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며 화가 난 마음을 며칠 간 다스렸다. 노무사와 상담도 했다.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승소를 한 들 그 학교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는 없을 일이다. 조용히 있기로 하며, 다른 학교를 물색했다.

다행히 그 시기에 교수공채가 눈에 띄었다. 다시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배로 옮기면, 그리고 항해하면 그만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다행히 경력과 연구실적, 분야가 딱 나에게 맞는 곳이었다. 그렇게 이 학교는 잊고, 신규채용 공지를 한 학교에 어플라이를 시작했다. 1차 서류심사는 예상대로 통과되었고, 2차 공개강의와 면접을 남겨두었다. 2차는 2배수만을 남겨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한 명을 심사 대기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지인이었고, 1차에 부분 조건이 맞지 않은 사람이어서 당연히 내가 되리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다. 발표일이 당초보다 일주일이 늦춰지고 있었다. 초조하고 불안했다. 또 그렇게 하루, 이틀이 늦어지더니 전화가 오지 않는다. 그 지역으로 이사까지 결정했던 나는 답답함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답만 연거푸 하고 있었다. 뭐가 죄송하단 말인가?

"그럼 그 선생님은요?"

나는 소심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아, 그분도 안 되었어요."

"왜죠?"

"네. 이번에는 학생모집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석으로 두기로 결정했어요."

이해 못 할 일이었다. 공석으로 둘 자리에 왜 공채를 하고자 한 것이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최종심사에 올라온 것도 아이러니하고, 이런 저런 들려오는 소식들과 소문들에 머리가 아팠다. 내심 학문의 요람에서도 서로 얽혀있는 작은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누군가의 말처럼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세상물정 모르고 덤볐던

것일까? 아님 내가 너무 부족했던 까닭일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당당하게 승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마저도 안 되는 상황에 보름가량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전에 한번 모 대학에서 최종심사까지 올라갔다가 미끄러질 때와는 기분이 달랐다. 나를 탓했던 그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며칠을 앓았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이 왔다. 평소 나를 챙겨주는 고마운 선배였다. 자신이 여기저기 나를 대신해서 지인을 동원하여 내가 들어갈 학교를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고마웠다. 거기에 차마 최근에 B대학교 공채에서 낙하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년에 나올 자리가 있는데……."

라며, 그 자리는 욕심 날 정도로 꽤 괜찮은 학교에 괜찮은 자리였다. 한참 얘길 듣다가 이어지는 그 다음 얘기가 문제였다. 그 자리에 가려면 얼마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선배는 남편과도 친한 사이라 이런 얘기는 당사자인 나보다도 남편과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생각해 준 마음은 고맙지만, 이 선배조차도 나를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씁쓸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주변의 몇 몇 선배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나에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조언까지 하는 누군가가 있어 기분은 또 바닥을 쳤다.

청탁하고 입사해서 교수하면서 3년 정도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정년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주 조심스러운 제안이었다. 나는 그걸 거절하는 데 일 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직은 연구와 강의가 즐거운 나였고, 내 능력과 아직도 청렴함이 남은 학교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남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떳떳하지 못한 인사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럴 돈도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대가성 있는

행위 자체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은 "집이라도 처분해서."라는 말을 꺼낸다. 마음이 울컥했다. "자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이 바닥의 행태라면 그걸 따라야지 않을까"라며 말이다. "당신 위해서라면 나는 더 고생해도 되네. 당신의 꿈을 펼칠 곳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

뭐가 정답인 것일까? 답답하기만 했다. 왜 내 이런 꿈을 청탁과 이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이틀을 생각에 잠겼고, 이내 나의 답은 자리거절이었다. 내가 꿈꿔왔던 당당한 꿈이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돈으로부터 접히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짧은 며칠이 흘렀다.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공무원은 응시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이다. 공무원은 내가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다. 다만 학교에 가기 전까지 잠시 들러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응시했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다. 입사 후, 첫 달은 가시밭길이 따로 없었다. 내가 왜 여기 와있는 것인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던 시기였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사람들과 출장업무가 많은 그때에 몸살이 났고, 긴장했고, 버텨야했다. 나의 직업적 정체성을 찾고자 내면의 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알게 된 동료들이 있었다.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챙겨주는 상사와 선배들이 있었고, 일도 배워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차츰 적응이 되어갔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일 경험에서 오는 다양함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지도 눈으로 몸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잠시 들러 가는 간이 정류장이 아닌 계속 머무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이 분야에 다 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떳떳한 입사라는 부분이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있었다.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나도 같은 나이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대로 갖추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바로 보인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선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투명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당당하게 내 아이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할 거라는 내 소신을 밝힐 수 있어서 좋다.

헬렌켈러가 말한 행복의 한 쪽 문이 닫혀서, 모두 닫힐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다른 쪽 문이 열렸다. 관행이나 지금 당장의 달달함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나를 위해 열려 있는 이 공직이라는 문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소중함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안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니 보인다.

입 선 상 일반부문 | 강기동

종이 자전거



발을 뗄 수 없었다. 무더운 여름 햇살 아래서 나는 그렇게 서 있었다. 턱을 타고 흐른 땀방울이 손에 닿아서야 정신을 차렸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때 머릿속에는 오직 '자전거를 돌려주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중학교. 무더운 날씨를 말해주듯 우렁찬 매미 소리가 가득한 교실. 수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절반은 나른한 날씨에 젖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3, 2, 1"

내 귓가에 속삭이는 성일이의 카운트 소리와 동시에 수업 종이 쳤고 담임선생님의 종례를 듣고 나서 책가방을 챙겨 나왔다. 가장 친한 친구 성일이와 함께 피시방을 가기로 한 나는 들뜬 마음으로 복도에서 뛰었고, '박 자객'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학교 교감 선생님께 걸려서 구레나루 고속도로(잡고 비틀리는 벌)를 당했다. 옆에서 성일이는 나를 보며 킬킬댔다.

"너 뒤졌어."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성일이를 뒤쫓다 보니 교문 앞까지 왔다. 막상 녀석의 뒷덜미를 잡고 나니 아까의 짜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바보처럼 웃었다.

학교가 언덕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교문은 내리막길로 되어 있었고, 많은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를 하던 중이었다. 자전거가 없던 나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휙휙 지나가는 친구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성일이 놈은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갔다.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우리는 피시방에 도착했다.

게임을 하며 고된 학업이 주는 스트레스를 열심히 날렸다. 그러다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던 나는 먼저 집에 간다고 했다.

"내가 내줄게. 좀 더 하고 가."

성일이에게 매번 신세 졌던 게 미안해서 집에 손님이 오신다는 핑계를 대고 피시방 밖으로 나왔다.

에어컨이 빵빵하던 피시방에서 나오니 밖은 더 덥게 느껴졌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로 피해서 집으로 향하는데, 문득 건너편 피시방 앞에 세워진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자전거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순식간이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새워뒀던 내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처럼 나는 행동했다. 자전거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죄책감이라곤 없었다. 솔직히 별생각이 안 들었다. 그냥 나는 갖고 싶던 자전거를 얻은 것이었다. 오히려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나를 들뜨게 했고 자전거를 타고 교문을 지나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물쇠 가게에 들려서 자물쇠를 사가는 거야'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가다가 오르막길을 만나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르막길을 오르던 중 저 멀리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한 할머니께서 종이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며 올라가고 계셨다. 어릴 적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탓에 외할머니 밑에서 컸던 나는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이상하게도 더 눈길이 가고 짠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리어카 할머니께 다가갔다.

"할머니 언덕 오르기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이구 젊은 학생. 말만으로 됐어. 고마워." 할머님은 땀을 닦으시며 손사래 치셨다.
"아니에요.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 하며 자전거를 한 손으로 끌고 나머지 손으로 리어카 뒤를 밀었다.
빙그레 웃으시며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할머니.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나와 같이 리어카를 밀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 5분 정도 언덕을 올랐다. 언덕을 오르는 내내 '이 무거운 종이들을 모아가시면 하루에 얼마쯤 버실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지?'하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공무원연금으로 편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외할머니와 너무 다르게 살아가시는 분을 보니 나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할머니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언덕에 다 오르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500원 동전을 내게 내미셨다.
"하드 사 먹어 아가. 고마워 덕분에 힘 안 들이고 넘어왔어."
"아니에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돈 있어요."
"받아, 받아. 안 받으면 내가 미안해."
계속 주시는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에 받았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이 더운 날 리어카에 종이를 모으러 돌아다니시는 거예요?"하고 내가 묻자 할머님은 사연을 얘기해 주셨다. 사실 할머니께서는 따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시며 생활하셔서 굳이 종이를 모으실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런데 손주 생일이 다가와서 자전거를 선물로 주고 싶어서 돈을 모으시는 중이라고 하셨다. 어떤 사연

때문인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지만 부모가 모두 도망치듯 떠나고 남은 손주와 둘이 사신다고 하셨다.

"할머니 안 힘드세요? 손주한테 자전거 안 사주면 이렇게 종이 안 주우셔도 되잖아요?" 내 물음에 한참을 생각하시다 씨익 웃으시면서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내가 좀 고생해서 부모 없는 우리 손주 웃는 얼굴 보게 된다면 나는 그걸로 됐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좋은 자전거 사준 아부지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혀." 한 마디를 남기시고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셨다.

나는 내생에 처음으로 내 자신이 창피했다.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내 옆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보고 있으니 할머니가 손자 자전거를 사 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종이 모으시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힘겹게 발걸음을 떼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계획대로 자전거 자물쇠를 샀다. 그리고 자전거를 집 앞에 세워놓은 채 집에 들어왔다.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멍하니 있었다. 원하던 자전거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채로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죄송해서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 모습이 떠올랐고, 동시에 할머니께서 종이를 모은 돈으로 산 자전거를 받아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면서 그렇게 앉아있었다.
그렇게 반성의 시간을 가지다가 마음을 굳게 다잡고서 편지지에 편지를 써서 집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서 피시방으로 향했다.
피시방으로 가는 길, '혹시라도 자전 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에 집으로

몇 번씩이나 돌아갈 생각을 했으나 그때마다 방과 후 만났던 할머님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가지고 계속 나아갔다. 그렇게 피시방 앞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누가 지키고 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자전거를 거치대에 세운 뒤 사온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피시방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는 사장님으로 보이는 30대 남성분이 앉아 계셨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부들부들 떨면서 내미는 내 손에는 자전거 자물쇠 키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사실은요..."말하며 나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드렸다. 자전거를 가져간 일, 할머님을 만난 일, 집에서 혼자 느꼈던 죄책감,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다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러 찾아온 일들을 말이다.

사장님은 내 얘기를 들으시는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얘기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입을 여셨다.

"잘 왔다."

"네?"기대했던 질타가 아닌 칭찬에 놀란 나머지 나는 놀란 눈으로 사장님을 쳐다봤다.

"물론 너는 충분히 잘못했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혼나야 해. 그리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학생이 할머님을 도와드리면서 스스로 느낀 일, 반성을 하고 용기 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와준 것들은 칭찬받을 만 해"

"아뇨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편지와 자물쇠 잘 전해줄게. 그리고 자초지종 설명해주고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잘못을 깨닫고 바로 찾아왔다고 말해줄게. 그러면 자전거 주인 학생도 금방

마음이 풀릴 거야."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장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남의 물건이 갖고 싶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물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해! 알겠지?"

"네... 명심할게요."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내 눈은 어느새 새로운 삶의 의미로 가득 찼고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누가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항상 잊지 말자. 남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하다는 사실을 말이야.'

사장님은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요구르트에 빨대를 꽂아 내게 주셨다.

"먹고 기운 내 학생. 다음에 한번 놀러 오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걸로 하자."윙크를 하시며 손을 흔드시는 사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피시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집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푹푹 찌고 무더운 날씨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맑은 좋은 날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다. 국어 시간에 본 '마음은 세상을 보는 창문'이라는 시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래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니까 세상도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앞으로 오늘 일을 잊지 말고 이렇게 나아가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집으로 향하였다. 어느덧 해는 지고 있었고 저녁노을이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노을을 바라보며 걷는데 신기하게도'리어카 할머니와 자전거를 받고 기뻐하는 손자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노을은 내 마음도 따듯하게 물들었다. 청렴韓세상

입 선 상 공직부문 | 김은영

한결이의 눈물



대학교 졸업 후, 상경해 사촌언니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다. 취업은 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직장생활과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의 이별로 무척 힘들었던 나는 그 당시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심정으로 생활했다. 그런 나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준 건 다름 아닌 조카 한결이었다. 한결이는 사촌언니의 딸이다. 10살이 된 지금도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고 믿고, 달에는 방아 찧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철석 같이 믿는 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다.

바쁜 워킹 맘인 언니를 대신해 난 한결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보다 이모인 나를 더 따랐고, 나도 그런 한결이가 더 없이 사랑스러웠다.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와 근거리에 살게 되면서 한결이와 나는 더욱 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 통화에 문자메시지는 기본이고 주말엔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꼭 만나고야 말았다. 이런 우리를 두고 남편은 별스럽다며 놀려댔다.

7월 어느 날, 여권 신청을 위해 나는 한결이를 데리고 시청에 갔다가 정문을 막 나서려던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비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나 하고 곤혹스러워 하던 차에 때마침 젊은

공무원 한 분이 오셔서 장마철을 대비해 '양심우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우산을 대여해 가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3일 안으로 반납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뻤다. 우리 둘은 사이좋은 모녀 사이 마냥 우산 하나에 몸을 맡기고 빗속의 정취를 느끼며 걸었다. 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한결이는 나에게 '양심'에 대해 물었다.

"이모, 근데 양심이 뭐야? 할아버지가 먹는 양갱 같은 거야?"

시청에서 우산을 빌릴 때 우산 뒤에 있던 '양심우산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입간판을 보고 질문했으리라. 이제 막 한글을 깨친 호기심 많은 한결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야 말겠다는 듯이 틈만 나면 한시도 쉬지 않고, 궁금증에 대해 폭풍질문을 쏟아내곤 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루였을 것이다. 갑작스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라고 알려주자니 그걸 이해하긴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 나름 고심 끝에

"할아버지께서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사탕을 혼자 먹지 않고, 할아버지 말씀대로 나눠 먹는 게 양심이야."라고 말해 줬다.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은 없을 거라며 혼자 뿌듯해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한결이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을 지으며 천진하게 웃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을까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기고 언니 가족과 우리 부부는 우아함이 묻어나는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와인도 곁들여가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즈음 형부는 짐짓 장난스러운 얼굴로 대뜸

"처제, 순수한 우리 딸 영혼에 스크래치 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라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뚱딴지같은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해 하니까 언니가 그간의 자초지종에 대해 이야기 해줬다. 사연인즉, 주말 저녁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던 중에 별안간 한결이가 꺼이꺼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것이다. 딸의 갑작스런 곡소리에 너무 놀란 형부와 언니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안이 벙벙했단다. 우선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고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왜 울었냐고 물었더니,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나쁜 사람은 TV에 나오는 저 아줌마들처럼 경찰 아저씨가 붙잡아 가는 거죠? 실은 이모가 며칠 전에 시청에서 양심우산을 빌리고 가져다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이모도 나쁜 사람이라서 붙들려 가는 거 맞죠? 그렇게 되면 한결이도 영영 못 보는 거예요?"라며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달고 되묻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언니가 이모한테 우산 돌려주라고 한결이가 이야기 해보지 그랬냐고 하니까 이모가 아가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든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했단다. 자기가 대신 가져다주려니까 가는 길을 몰라서 그만두었다고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이모 정말 잡아가면 어쩌냐며 울먹거리더란다. 몇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눈물 그치기를 멈추지 않는 한결이 때문에 언니는 적잖이 애를 먹은 모양이었다.

아. 뿔. 싸. 둔탁한 무언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했다. 우산 하나가 이렇게 크나큰 화근이 될 줄이야.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나의 육중한 몸을 구겨서라도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야 모든 일이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한결이가 왜 우리 집에 와서는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했는지, 멍하니 현관을 바라봤는지 알 것 같았다. 며칠이고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우산을 보면서 그 여리고 착한 애가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것 생각하면……. 나 또한 오며 가며 간간이 보이는 우산 때문에 찜찜하긴 했지만 이내 육아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나 하나 반납 안 한다고 해서 천지개벽 나는 것도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뤄뒀다.

맞다. 부끄럽지만 고백컨대, 난 그저 귀찮았을 뿐이다. 지금에서야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다.

"은영아,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야.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도 있잖아. 어른들이 평상시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모범적인 언행을 해야지. 엊그제 내가 동창회를 갔었는데 글쎄 남자 동창 하나가 자랑삼아 떠벌린다는 얘기가 가관도 아니더라. 놀이공원에서 36개월 이상은 어린이요금을 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이 몸집이 작다는 것을 이용해 베이비요금만 내고 다녀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동창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하는 거 있지. 얼마나 낯부끄럽던지. 정작 본인은 알뜰하고 재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뭘 보고 자랄까 싶은 게 안타까운 마음뿐이더라. 너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만큼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비단 이번 우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언니는 부드럽지만 강한 말투로 뼈있는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후에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IQ나 EQ보다는 도덕지능인 MQ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한다. 낮은 도덕지능은 인생에서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도덕지능을 형성하는 것은 뇌 부분 중에서도 전두엽이 담당하는데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하고서도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한다. 평생에 걸쳐 발달하는 전두엽은 특히 3-4세부터 7-8세에 걸쳐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열 살 전에 철저한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난 둘도 없이 소중한 조카에게 하마터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말이지 나쁜 사람이 될

뻔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뒷목이 뻐근하고, 모아 쥔 두 손에 땀이 나면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바로 그 다음 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우산을 제자리에 돌려주고, 버리고 왔던 내 양심을 되찾아왔다. 한결이에게도 다음부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에 다짐을 하고서야 우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뒤늦게 딸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셨는지 전화로 1시간 남짓, '도덕과 양심'에 대한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훈화말씀을 이어 가셨다. 그 후로도 같은 이야기를 세 차례나 더 듣고서야 끝이 났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른생활 맨'이라고 칭송 받을 만큼 공중도덕과 예절에 대해 엄격하신 당신에게 딸의 이 같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리라.

그날 이후, 그전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의식조차 하지 않고 서슴없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싫어 일부러 자는 척 하기 일쑤였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무단횡단에 과속, 얌체 끼어들기까지. 이 밖에도 말로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앞으로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조카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리라.

한결아, 그때는 이모가 미안했어. 이모한테 많이 실망했지? 이제 '나쁜 사람' 말고 양심 지키고 사는 '좋은 사람' 될게. 사랑해. 청렴세상

입 선 상 공직부문 | 김태현

초코파이



내 나이가 여덟 살이 되던,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거리는 술꾼들이 모두 빠져나간 새벽 골목처럼 황량했다. 가로수는 하나같이 앙상했고 추위는 시도 때도 없이 구멍 난 벽으로 몰아닥쳤다. 추위에 몸이 오들오들 떨려 잠을 깰 때면 언제나 이불을 둘둘 말고 잔뜩 웅크린 채 자는 동생이 보였다. 동생 옆에 자고 있어야 할 엄마는 이미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아마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성미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삼시 세끼를 교회에서 받아오는 성미에 간장을 비벼 먹기 일쑤였으며 그마저도 없으면 다섯 식구가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국물로 배를 채우거나 굶었다. 그런 새벽이면 나는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늘 엄마를 기다리곤 했다. 너무 춥고 배고파서,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 남몰래 울던 날이 많았다. 이 문이 또다시 열리지 않게 될까봐 겁이 났다. 참을 수 없던 것은 추위나 굶주림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바깥은 여전히 깜깜했다.

시간을 거슬러 내가 아직 일곱 살이었을 때, IMF 이후로 기울기 시작하던 아버지의 사업은 동료의 배신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다. 하루아침에 사장님에서 실직자가 된

아버지는 늘 술에 절어 살았고 새벽이면 집으로 돌아와 폭력을 행사했다. 늘어나는 부채와 변한 아버지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엄마는 결국, 열 밤만 지나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어 깜깜한 밤 속으로 떠나버렸다. 그로부터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열 달이 지난 12월 밤눈이 내리던 현관문 앞이었다. 나는 한걸음에 달려가 엄마 품속에 안겼다. 옷자락에 묻은 눈이 정말 따듯했다.

그렇게 엄마가 돌아온 뒤 처음 며칠은 화장실에 있다가도 현관문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뛰쳐나갔다. TV를 보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세수하면서도 늘 엄마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엄마가 바깥을 나갈 때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따라나섰고 집에 있을 때면 나 역시 집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친구들이 현관문을 두들겼다. 매일같이 놀던 내가 아지트에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서 온 것이었다. "나가서 좀 놀다 오지 그러니" 엄마가 말했고 나는 고개를 좌우로 세차게 흔들었다. 그날 밤 엄마는 미안하다면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그 이후로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았다. 내 행동이 엄마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고 울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처럼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상 불안하였으나 내가 착한 아이가 된다면 약속한 것처럼 엄마는 절대 떠나는 일이 없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안심시켜도 새벽에 일어났을 때 엄마의 빈자리를 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다. 약속과 상관없이 현관문 너머의 어둠이 당장에라도 엄마를 잡아먹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벽에 깰 때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잠을 자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새해가 밝은 날 역시 그렇게 잠이 든 것이었다. 눈을 뜨자 옆에 누워있는 동생이 보였다. 엄마가 옮겨놨으리라. 몸 위로 곱게 덮여 있는 이불의 촉감이 좋았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진 것이었다. "배고파" 잠에서 막 깨어난 동생이 눈도 뜨지 못한 채 홀린 듯 냄새를 향해 걸어갔다. 그 날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떡국과 가래떡을 배불리 먹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동생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동네 친구들과 새해부터 놀기로 한 것이다. 동생은 나와 세 살 터울로 다섯 살이 막 되던 참이었는데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니곤 했다. 때때로 나는 그런 동생이 귀찮을 때도 있었으나 차마 내칠 수 없었다. 엄마가 떠나있을 동안 어린 동생이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동생은 엄마가 돌아온 뒤에도 엄마가 아닌 나를 줄곧 따라다녔다.

우리들의 아지트는 공원처럼 조성해 놓은 아주 작은 동산이었다. 머리 위에 해가 둥둥 뜰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동네를 훤히 내려다보며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정하였다. 친구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늘어놓은 뒤에 내가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며 쳐다보았다. 새해 첫날 하게 될 우리의 놀이는 고대 유적지 탐험 놀이었다. 우리는 인근에 버려진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사못과 너트 등 버려진 물품들을 발견하며 저마다 "심봤다"라고 외쳤다. 한참 뛰어놀고 나니 우리는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뱃돈도 받았을 테니 서로 돈을 모아 과자를 사 먹기로 하였다. 그러나 새해부터 집이 아닌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집안 사정은 다들 비슷했다. 그 당시 고강동의 아이들 대부분은 가난했고 내 친구들 역시 그랬다. 그나마 머리 꽁지에 브릿지를 넣은 괜찮게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 역시 엄마가 모두 가져갔다며 돈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모은 돈은 고작 200원이었다.

우리는 식량 찾기 놀이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찬바람이 부는 가난한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지쳐가는 무리 가운데 결국 한 아이가 춥고 배고파서 더는 못 가겠다며 주저앉았다. 브릿지를 넣은 친구였다. 브릿지를 넣은 친구는 당장에라도 울 기세였는데 그때 옆에 있던 밤톨처럼 생긴 친구가 큰소리로 외쳤다. "저기 슈퍼가 있어." 우리는 입을 맞춘 것처럼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정말 커다란 슈퍼가 하나 있었다. 그 슈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삭이네 아줌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만약 이삭이가 우리의 친한 친구였다면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이삭이를 싫어하였다. 그 아이는 집이 부유함에도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으며 지독한 겁쟁이였기 때문이다. 이삭이는 장난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자신에게 없는 장난감을 자랑할 경우 그것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거나 종종 훔치곤 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로봇과 같이 비싼 선물을 사줄 때면 이삭이는 우리에게 들고 와서 자랑하곤 하였는데, 우리가 호기심에 만지려고 하면 때가 묻는다며 재빨리 도망가곤 하였다. 그래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엄마의 말 때문에 이삭이가 원하면 종종 같이 놀았다. 그러다 한 번은 놀이하던 중 동생이 나와 떨어져 있자, 이삭이 그 녀석이 동생보고 엄마 없는 고아라고 놀려서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그 뒤로 이삭이는 우리와 놀기는커녕 걷다가도 내 모습이 보이면 골목으로 빠지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가곤 하는 것이었다.

"초코파이 진짜 맛있는데"

브릿지를 넣은 친구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가게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초코파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밤톨을 닮은 친구가 말했다.

"대장, 우리 초코파이 먹자!"

나는 우리가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고 그 친구도 그걸 알고 있었다.

"훔치면 돼. 이삭이가 그랬듯이."

밤톨을 닮은 친구의 대담한 발언에 우리는 모두 놀랐으나 곧 동조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그건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잠자코 있던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삭이는 나쁜 아이야. 내 인형도 훔쳤는걸."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이삭이의 흉을 보면서 이삭이는 훔치는 것이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브리지를 넣은 친구는 자신이 읽은 임꺽정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사람들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라고 말했다. 배고픈 아이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나는 친구들을 진정시키려다가 침을 흘리고 있는 동생을 보았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이번 한 번만이야. 그리고 이건 훔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빌리는 거야. 내일 세뱃돈을 가져오면 초코파이를 사서 꼭 돌려줘야 해. 다들 찬성해?"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했다.

"이삭이는 내 인형을 돌려주지 않았어." "물론 이삭이도 돌려줘야지. 내가 말할게."

그러자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초코파이를 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내 계획에 따라 모두 정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극놀이와 다를 바 없었다. 내 동생과 여자아이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약하므로 망보기 역할을 맡겼고 날쌘 밤톨 친구와 브릿지 친구에게는 초코파이를 훔치는 역할을, 그리고 눈치가 빠르고 말을 잘하는 내가 가게에 들어가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훔치는 과정에서 아줌마가 내게 돈 없으면 자꾸 건들지 말고 나가라며 자존심을 뭉갠 것 외엔 별로 문제 될 게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였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공사장에 모였고 훔친 초코파이 한 상자를 분배하였다. 제일 위험한 일을 한 밤톨 친구와 브릿지 친구에게 세 개를 주고 나머지는 두개 씩 나눴다. 처음에는 다들 동의하였으나 다 먹고 난 뒤 동생이 자신은 왜 두 개밖에 안 주느냐고 더 먹고 싶다며 칭얼거렸다. 그러자 밤톨 친구가 웃으며 어디서 났는지 초코파이 한 상자를 더 꺼내 들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브리지를 한 친구와 밤톨 친구가 각각 한 상자씩 훔쳤다는 것이다. 나는 이건 아니라며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배를 채운

뒤에도 더 원하는 것은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책에서 본 욕심쟁이들의 말로를 아이들에게 말하며 만약 우리가 이것마저 먹는다면 모두 벌 받을 것이라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먹고 싶다며 생떼를 부렸다. 나는 화가 난 나머지 자꾸 고집 피울 거면 집에나 가버리라고 따끔히 혼냈고 동생은 엉엉 울며 집으로 뛰어갔다.

동생이 떠나간 뒤 우리는 초코파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의논하였다. 날이 어둑해지고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가 말했다.

"그런데 돌려주다가 들키면 어떡해. 우린 모두 감옥에 갈 거야."

"감옥은 안 돼! 아빠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가족을 볼 수 없댔어." 브리지를 한 아이가 흥분했다.

"안 걸리면 되지."

밤톨을 닮은 친구가 자신 있게 말했으나 아이들은 이미 감옥이라는 단어로 겁에 질려있었다. 나 역시 브리지 친구가 한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엄마를 영영 볼 수 없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이 떠올랐다. 나는 일단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초코파이를 여기 묻어두고 내일 다시 모이자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브리지 친구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초코파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결국 공사장을 돌아가 초코파이를 다시 꺼냈다. 나 혼자서라도 다시 되돌려 놓고 오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으로 이삭이네 슈퍼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엄마였다. 엄마는 이삭이네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나를 보자 세모꼴이 된 얼굴로 다가왔다. 내게 동생에게 다 듣고 왔다며 너 말고 또 누가 이 일에 가담했냐고 물었다. 나는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만 연신 말할

뿐이었다. 계속 누가 더 있느냐고 묻는 말에 아무 말 하지 못하자 엄마는 그 길로 나를 끌고 경찰서까지 갔다.

그리고 경찰 아저씨에게 여기 도둑질을 한 아이가 있으니 어서 감옥에 보내라고 말했다. 처음에 경찰 아저씨는 웃으며 나를 질타하다가 엄마가 진심으로 말하자 당황하는 눈치였다. 결국, 나는 울음이 터진 채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 날 엄마는 방에서 서럽게 우는 내게 뚝 그치라고 말한 뒤 현관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러나 나중에 현관문이 열렸을 때에 양손 가득 찬거리와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든 엄마가 보였다. 동생은 기뻐하며 아무 생각 없이 초코파이를 마구 먹어댔으나 나는 괜히 더욱 서러워져서 단 한 개의 초코파이도 먹을 수 없었다. 엄마를 끌어안고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나중에서야 안 것은 엄마가 그 날 배고픈 우리를 위해 결혼반지를 팔고 오셨다는 사실이었다.

그 뒤로 나는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 수많은 유혹의 갈래 길에서 항상 그 순간을 떠올렸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참고 견뎌낼 수 있었다. 당시에는 정말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것들도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바늘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소도 훔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청렴이라는 단어는 결코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절제한다면 큰 유혹이 다가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초코파이를 건네주고 싶다. 청렴韓세상

입 선 상 일반부문 | 정혜연

청렴사진관



유난히 파란하늘이 이날따라 더욱 높아만 가는 가을 날씨였다. 아침부터 다급한 듯 빠르게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가을 하늘 감상은 끝이 났다. 수화기 넘어 깊은 한숨과 함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아주머니가 근심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어제 그 곳에서 유모차를 대여했었는데, 그 유모차에 귀중품을 놓고 왔다."는 전화였다

"현재 습득물은 들어오지 않았으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워하시는 아주머니를 뒤로 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귀중품은 다름 아닌 DSLR 카메라였다. 지금이야 많이 보편화된 DSLR 카메라지만 이 때만해도 보급화 되지 않던 부의 상징이었다. 나에게는 일반 카메라도 없던 그토록 구경이라도 실컷 해보고 싶었던 바로 그 DSLR!

유모차 보관함을 열어 3대의 유모차를 하나하나 뒤적거렸다. '그 고가의 DSLR을 누가 봤어도 가만히 뒀겠어? 당연히 없겠지.' 하면서 마지막 유모차를 뒤적거린 순간 나도 모르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광고 속에서만 보이던, 나도 한번쯤 꿈꿔봤었던 카메라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신이시여.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나는 이미 물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빠르게 유모차 깊숙이 카메라를 숨기고 있던 추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고는 전화를 걸었다.

"유모차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듯 전화를 끊는 아주머니의 모습은 화상통화가 아니지만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분명 유모차에 있던 DSLR 카메라를 보고도 못 본 척 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좀처럼 어떤 일에도 집중 할 수가 없었다. 내 시선은 온통 유모차 보관함에만 가 있었다. 어쩌다 걸려온 전화벨소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 아이처럼 나를 깜짝 깜짝 놀라게 했다. 후회, 다시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시간은 더디게 흘려가고 있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시각, 나는 카메라를 꺼내 아무도 없는 화장실로 향했다. 카메라 전원도 켜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카메라 놀이에 빠져 있었다. 여러 버튼을 누르던 중 카메라에 찍혀진 사진들. 평범하고 그들만의 일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짐작했었던 아주머니, 갓 태어난 아이, 행복한 세 식구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나의 죄책감은 극도로 다다르고 있었다.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던 갓난아이의 얼굴은 마치 바른길로 나를 인도하는 것만 같다.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한 거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없다고 했던 카메라를 다시 있다고 연락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 마당에 독하게 마음먹고 "메모리카드를 빼버리자. 그럼 괜찮을 거야." 내안의 탐욕은 좀처럼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제는 감쪽같이 이것이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훔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며 딸깍하고 메모리카드를 눌렀다. 카메라 본체 옆면으로 빠져나온 메모리카드에는 "우리 딸 사랑하기 100일 작전"이라고 적혀있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 가족의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망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당연하게 전화를 걸어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 딸 사랑하기 100일 작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곱게 포장해서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다. 부끄럽고 추했던 내 잘못을 이렇게라도 반성하고 싶었다.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이 또 나를 유혹한다면 보는 사람이 있던, 없던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청렴을 가르쳐준 DSLR 카메라 속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깨끗해져야 한다. 이제 나는 그 갓난아이만큼 천사 같은 2명의 아빠다. 나의 아이들에게 물욕을 가르쳐줘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부패(탐욕)와 청렴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는가?

얼마가 지났을까, 택배아저씨의 손에 들여져 있던 조그마한 박스는 어느새 나에게로 향해 있었다. 보낸 이는 얼마동안 잊고 있던 DSLR 카메라의 아주머니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눈처럼 하얗게 수북한 백설기 떡이었다. 그 아이 100일된 떡이었구나, 순간 알 수가 있었다. 속도 모르고 나 같은 놈에게 감사의 인사로 백일 떡을 보내주신 것이다. 처음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찾아서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적어도 나에게는 그 순간 백설기 떡은 갓 출소한 이에게 주는 두부 한 모였다. 평소 떡을 좋아하지 않은 나지만 그날따라 어찌나 맛있던지 지금도 백설기 떡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아직도 DSLR 카메라가 없다. 어쩌면 그 어떤 선명한 화소의 DSLR 카메라도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그 날 이후부터 내 마음 속에는 매일 매일 청렴필름을 현상하며 나만의 청렴사진관을 영업하고 있는 중이다. 청렴세상

입 선 상 일반부문 | 조정임

손지



몇 번을 망설였다. 시집 한 권을 사다가 은행에서 미리 교환한 빳빳한 신권을 넣은 두툼한 봉투를 책갈피처럼 끼워 넣고 포장을 했다가 다시 뜯었다. 표시나지 않게 봉투를 전달할 방법을 고심하였다. 동네 제과점으로 가서 케이크를 사와서 박스 안에 봉투를 살짝 밀어 넣어 보았다. 불룩 튀어나온 겉모양이 마음에 걸려 다시 꺼내고 말았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 보아도 영 마뜩치가 않았다. 내키지도 않았다. 아이의 반 학부모 모임에서 스승의 날에 선물비를 걷자는 제안에도 선생님께 누가 되는 일이라며 당당히 거절했던 나였다. 하지만 막상 내 아이 문제에 부닥치니 객관성을 잃었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게 엄마라는 유약한 이름 때문이었으리라.

결국 다시 정성을 들여 표 나지 않게 시집 사이에 간단한 메모를 첨부한 봉투를 넣고 처음의 계획대로 포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서둘렀는데도 어느 새 상담시간에 임박해 헐레벌떡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어수선하기만 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시집을 넣어 둔 백으로 자꾸만 손이 갔다. 꼭 이래야만 하나? 자문과 자책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선생님께 슬그머니 시집을 내미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예행연습이라도 하듯이…….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고 올까, 책꽂이에 몰래 꽂아놓고 올까, 가슴에 와 닿는 시가 있어 한 번 읽어보시라고 사왔다는 사족을 달까, 오만가지 생각이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과학고를 보낼 생각입니다. 이번 수학경시대회 때 꼭 좀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인 내가 보기엔 아이는 수학성적이 꽤 우수한 편이다.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성적이었음에도 학교에서 대표로 추천하는 전국 규모의 수학경시대회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못했다. 과학고에 진학하려면 꼭 필요한 이력이었기에 나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속이 많이 상했다. 추천이 공정하지 않은 것만 같았다. 혼자 속을 태우다 학교 어머니회에서 만난 치맛바람 꽤나 날린다는 학부모 한 분께 넋두리를 했더니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시집을 준비한 것이었다. 상담을 끝내고 시집을 내미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고 또 망설였지만 아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말도 안 되는 위안을 하며 선생님의 책상위에 포장된 시집을 내밀며 오기 전에 몇 번 연습한 대로 말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시가 있어 시집 한 권 사왔어요. 시간 날 때 읽어 보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혹시나 거절을 당해 난처한 상황이 초래될까 걱정했는데 막내 동생뻘 되어 보이는 20대의 젊은 여선생님은 해맑게 웃으며 흔쾌히 받아주었다. 들어갈 때의 초조함이나 걱정에 비해 나올 때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선생님은 시집 사이에 꽂아 넣어 둔 봉투를 보았는지 아직 보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침묵은 긍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믿었다. 그래서 아이를 더욱 닦달했다. 교내 경시대회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만 하라고 격려와 독려를 반복하며 극성을 부렸다. 사실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과학고도 내가 정해 준 목표였지 아이는 오히려 감성적이라 어학분야에 더 뛰어난 소질과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사내아이라 성인이 되어 진로를 선택할 때를 생각하며 나는 아이가 공대나 의대로 진학하기를 원했고 마침내는 내가 만든 길로 아이를 인도하려 억지를 부렸다. 가끔은 회의를 느끼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라 대신 살아 줄 수도 없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고 있었다.

중점 과외 덕분인지 아이의 수학성적은 크게 향상되었다. 교내 경시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제 학교의 추천을 받아 더 큰 규모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테고 그 스펙으로 과학고 진학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며칠 뒤 드디어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교내 경시대회 성적이 나 온 바로 뒤였기에 나는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며 조언을 해주시던 그 학부모의 말이 맞구나 싶었다. 선생님께서 정해준 시간에 맞춰 발걸음도 가볍게 상담실로 갔다. 선생님은 이미 먼저 와 계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변함없는 해맑은 미소가 왜인지 가슴 한편에 와서 콱 박혔다.

"어머니. 시집 잘 읽었어요.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감명 깊게 읽은 책 한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겉포장을 하지 않은 한 권의 책을 내밀었다. 책을 받아 든 순간 손끝에 느껴지는 책의 두께감이 너무 익숙하여 이내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처음 시집을 포장할 때의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고스란히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더 이상 책이나 봉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몸 둘 바를 몰랐다.

좌불안석이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선생님의 해맑은 미소와 단호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어머니. 어머니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민석이는 똑똑한 아이라 제 일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선생님이 주신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상담실을 나올 때 나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고 있었다. 뉴스를 보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태를 꼬집고 비판을 하던 내가 바로 그 비판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뉴스속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아이에게 늘 정정당당한 승부를 가르쳐왔고 정의롭게 살라고 조언을 했던 나는 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다행히 반듯한 생각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 나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 주었다지만 세상엔 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유혹은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물과 세제밖에 닿지 않는 세면대나 욕조도 매일 닦지 않으면 쉽게 벗겨지지 않는 차진 물때가 끼는 것처럼 마음에도 묵은 때가 끼지 않도록 매일 깨끗이 닦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선생님이 주신 책을 살펴보니 책갈피 속엔 내가 넣어 전했던 두툼한 봉투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다. 불현 듯 나는 내가 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면죄를 받고 싶었다. 풀렸던 다리에 다시 힘이 올랐다.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들렀다. 센터장님을 만나 남 몰래 책갈피에 끼워 부정한 마음을 담아 전하려했던 그 봉투를 새 주인을 찾아 내밀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센터장님은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럽기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보에 없었던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졌다. 우산이 없었으므로 비를 쫄딱 맞았다. 하지만 속이 시원했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려했던 내 부끄러운 행동도 세찬 빗줄기에 씻겨 깨끗해지길 바랐다.